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OCT 4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44 1982년 10월 4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Monday, October 4,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밀입국 사건, K씨 5가지혐의
배심원들 유죄인정
5명은 10일간 징역형

지난 18일 미국경수비대에 체포된 토론토교민 K씨는 밀입국자 운송혐의등 모두 5가지 혐의로 1일 뉴욕주 수도 올바니(Albany)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보다 앞서 지난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는 16명의 미국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K씨의 유죄를 인정, 「1일 정식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평결했다.

K씨의 경우 모두 5명의 한국인 밀입국자를 미국에 잠입시키고 댓가로 이중 4명으로부터 800달러씩 3,200달러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사건담당 팬시우로검사는 30일 "5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가 되면 K씨는 최고 1만달러의 벌금과 25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씨는 미국인변호사 리빙스톤·해치씨를 고용, 혐의에 대항하고 있다.

한편 K씨와 같이 체포된 5명의 한국인 호중기, 조정호, 조희열, 전상수, 김하준씨는 밀입국사실을 인정, 10일간의 징역형을 받았다. 이들은 징역후 이민국에 넘겨져 강제추방령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서 강제출국령을 받은 자는 미화 1,500달러를 이민국에 주어야 출국이 가능하며 그때까지는 수감돼 있는 것이 보통이다. 캐나다 경우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 강제출국자는 재정부담이 한푼도 없다. 출국자가 한국사람이면 캐나다호송관은 동경까지 동행한다.

봉사위원회 설치
한인장로교회

토론토한인장로교회(목사 박희민)는 사회위원회를 설치, 위원장에 배형도 장로를 임명했다.

교포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선교와 봉사를 활발히 펴기 위해 조직한 이 위원회는 양로원 건립, 한인회관 건립, 맹인선교, 노년복지등에 적극 협조키로 계획을 세웠다.

이 교회는 18개월전 TV선교방송을 제작·운영, 미디아를 통한 선교·봉사해 오고 있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이외무, 슐츠와 회담
정상회담 제의검토

(뉴욕)방미중인 이범석 외무부장관은 조지·슐츠미국무장관에게 태평양연안국가 정상회담을 제의했으며 슐츠장관은 신중히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27일 미국무성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장관과 슐츠장관이 26일 35분간 회담했으며 슐츠장관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남북대화 재개노력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정경화 5,500여 청중 매혹
토론토 심포니 협연서 기립박수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33)씨는 29일과 30일 저녁8시 토론토 로이·톰슨·홀을 꽉 메운 토론토의 5천5백여 음악팬들로부터 세차례씩의 커튼·콜과 함께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2일째인 30일 랄로(Lalo)의 스페인 교향곡의 마지막 부분이 끝나자 청중들은 기립박수로 찬사를 보냈다.

한국인 청중의 수는 이틀간 약 30명정도. 입장권 가격은 평균잡아 22달러였다.

토론토·심포니의 모짜르트 교향곡 No. 41 〈주피터〉의 연주가 끝나자 어깨를 드러낸 화려한 보라빛드레스 차림의 정씨가 지휘자 앤드류·데이비스와 함께 무대에 등장했다.

곡의 흐름에 따라 온 몸을 드라머틱하게 움직이며 음악에 빠져든 정씨는 악장과 악장사이의 휴식동안 지휘자와 확인의 미소를 주고 받는 등 훌륭한 앙상블을 보였다. 정씨와 심포니는 로이·톰슨·홀의 훌륭한 음향장치와 더불어 3악장 부분에서 완전히 무르익었고 협주가 끝나자 땀에 젖은 지휘자는 정씨의 양뺨에 키스로 축하했다.

연주회 마지막곡인 『프리드맨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은 심포니의 클라리넷 주자였던 캐네디언 작곡가 프리드맨씨의 곡으로 세계 초연. 작곡자 자신이 2층 맨앞자리에 앉아 지켜보았고 연주가 끝나자 지휘자는 작곡자를 일으켜 세워 청중의 박수갈채를 작곡자에게로 돌렸다.

정씨는 29, 30일 CBC-FM 방송, 30일 글로브·앤드·메일지에 사진과 함께 소개되었고, 특히 CBC방송은 연주실황을 중계했다.

글로브·앤드·메일지는 "정경화씨는 1악장 부분에서는 음악보다 제스추어가 더 두드러졌다가 2악장 안단테의 음울하고 감정적인 부분에서 서정적이고도 우아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피날레의 불명확함에 불구하고 정씨의 대가로서의 면모(Virtuosity)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논평했다.

◆29일 하오 예비연습하는 토론토·심포니와 정경화씨. 지휘자는 앤드류·데이비스.(30일자 글로브·앤드·메일에서)

캐네디안의 1/8 여권 소지
여권발급소 전국16개소 있어

캐네디안 8명중 한명은 유효 캐나다여권을 소지, 매년 65만이상이 여권을 발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

캐나다여권 발급신청은 지난 30년간 급격히 늘어났다. 1950년에는 여권발급소가 오타와 한곳밖에 없었으며 그해 불과 64,639건의 여권이 발급되었는데 비해, 지난해에는 오타와와 캐나다주요도시에 흩어져있는 16개여권 발급소및 세계각국에 나가있는 캐나다대사관과 영사관등에서 총654,224건의 여권이 발급되었다.

여권발급수요를 충당하기위해 지난 12년동안 15개 여권발급소가 개설되었으며 이들 모두는 도시 중심부에 자리잡고 해외여행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여권발급소가 설치되어 있는 도시는 빅토리아, 벵쿠버, 사스카툰, 위니펙, 에드몬톤, 칼가리, 토론토, 노스·욕, 해밀톤, 런던, 윈서 쾌벡서, 몬트리얼, 헤리펙, 프레데릭톤, 세인트·존, 뉴파운드랜드의 16곳이다.

캐나다에서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여권신청서(우체국, 여행사, 여권발급소에서 구할수 있음)에 기입을 하여 사진두장, 시민권증빙자료와 비용20불을 동봉하여 여권발급소에 우송하게 되면 72시간내에 여권을 발급받게 된다.

썸머타임 해제
31일 02시

31일(일) 새벽2시를 기해 썸머타임이 해제된다. 따라서 새벽2시는 새벽1시가 되도록 시계바늘이 1시간씩 뒤로 돌려진다.

중앙은행금리 12.98%
6주간 연속하락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캐나다중앙은행(Bank of Canada)금리가 30일 12.98%로 확정, 일주일전의 13.18%보다 0.20%떨어져 6주간 연속 하락 양상을 보였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재정증권 매각을 통해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드라면 이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또한 중앙은행은 금리가 서서히 하락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내주에는 우대금리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30일 중앙은행율이 하락함으로서 뱅크·오브·노바스코티아는 몰기지율을 0.5퍼센티지·포이트 내려,1년짜리는 16.25%, 2년짜리는 17%, 3년짜리는 17.25%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1년짜리 몰기지 이자율은 지난 7월이래 3퍼센티지·포인트가 내려 1년만만에 최하 수준을 기록했다.

오늘의 예금금리
한인신용조합

기 간	일반정기예금	오푸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2%		11.5%
90일	12.5%		11.5%
180일	12.75%	12.75%	12.0%
365일	12.75%	12.75%	12.0%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독립관」 모금에 활력소
최덕량씨 $1천 희사

교포 수출입업자중 대표적 사업가로 꼽히는 최덕량씨(42·도날드·최)가 본사의 독립기념관 건립모금에 호응, 30일 1천달러를 보내왔다.

키치너(토론토 서남방 73마일지점)에서 하드웨어 제조공장도 경영하는 최사장은 착실한 불교신자로서 한인사회의 주요행사, 모금운동에 소리없이 참여해온 것으로 정평이 있다.

서울 외국어대학 졸업(스페인어과)후 스웨덴 유학, 69년 토론토로 이민온 후 캐나다 도날드·최주식회사(Donald Choi Canada Ltd.)를 설립했다. 교포중 가장 재정적 뒷받침이 좋은 사업가로 알려진 최사장은 캐나다외환은행 고객중 가장 볼륨이 큰 최대의 고객이다.

의외로 호응도가 낮은 독립기념관 모금운동에 활력소를 제공한 최사장은 본사의 인터뷰요청이나 인물사진 송부 요청등을 모두 사양했다.

1일 현재의 독립기념관 모금현황은 최사장의 1천달러를 비롯, 박대인 2백, 김승택, 원모, 박진근씨가 각 1백, 최성패, 김충헌 50, 이상온여사 20달러등 누계 1,620달러이다.

◀금주의 행사▶

—10월4일(월)~10일(일)—

◆4일(월) 하오7시 한인Y웨스톤영어교실 개강
곳 : Daystrom국민학교(매주 월·수 강의)-삼복식품 뒤
연락처 : 536-1166(Mr. Kim)

◆6일(수) 하오7시 미술교실 개강
곳 : 삼우스튜디오(58 Wade Ave.)
(랜스다운 지하철 북서쪽)
문의처: 537-7630(장연탁)

◆6일(수)~7일(목) 하오8시 한국국립무용단 공연
곳: Ryerson 극장(43 Gerrard St. E. Tor.)
연락처: 595-5088

◆9일(토) 상오9시~하오6시 야유회
한국노년회 단풍놀이
곳: Belfountine & Hockley
연락처: 755-8079(노년회)

◆9일(토) 하오1시, 합동야유회
호남향우회·모악회 공동주최
곳: Forks of Credit
연락처: 465-8685(유인)

◆9일~10일 하오 7:30 창립6돌 특별신앙사경회
주최: 미시사가한인연합교회
곳:동교회(2500 Minosa Row. Missi.)
연락처: 276-5163(교회)

◆9일(토) 정오 마스터골프 토너멘트
주최: 무나미트로피사
곳: Nobleeton Lakes 골프클럽
연락처: 298-3584(무나미트로피사)

◆9일(토) 상오8시~하오7시30분 단풍관광
"Y와 함께 즐거운 여행을"
곳: 알공킨 국립공원
연락처: 536-1166(김창열)

◆10일(일) 하오5시 우리말 잘하기대회
곳: 교육회관(252 Bloor St. W. Tor.)
연락처: 789-7352

◆10일(일) 목사초빙 마감일
몬트리얼한인장로교회
(6570 Sherbrooke W. Montreal, Que.)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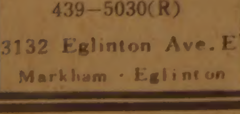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 1692
R 245 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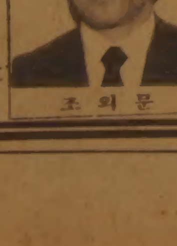
강하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대리점
각종와상품
귀국선물
☎ 534-0977 7791 620A Bloor St. W.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왜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밴,트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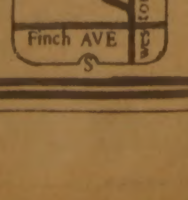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의문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시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삼우스튜디오
성인미술교실안내
—FREE WORK SHOP—
개강일시 : 10월6일(수요일)
수시접수

수	인체뎃상 (착의혹은누드)	오후7시~9시	이젤 화판제공
목	인체뎃상 (착의혹은누드)	오후7시~9시	이젤 화판제공
토	조소·조각 (MODELING OR CARVING	오전10시~ 오후2시	조각대 제공

●초심자를 위한 개인지도
●기성작가 참여 환영
문의처 : 537-7630(스튜디오)
536-1908(집) MR. 장
SAM WOO STUDIO
58 WADE AVE.
(Lansdown 써브웨이 북서쪽)

East AsianLibrary
Rm 0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하이웨이 치사율 줄어

오토바이, 음주사고는 늘어

지난해 온타리오주 하이웨이 교통사고 치사율은 지난 25년이래 최하수준으로 떨어졌다.

30일 온타리오주 교통·체신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1980년에 1,508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445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운행거리는 80년도의 724억km에서 지난해에는 709억km로 줄었으나 1억km당 치사율은 80년도에 2.1, 지난해에 2.0으로 1955년이래 최하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하이웨이상에서 일어난 오토바이 사망건수는 80년도의 81명에서 지난해에는 16% 증가한 94명으로 늘어나 75년도에 97명이 사망한 이래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이로써 오토바이 면허소지자 10만명당 치사율은 80년도의 32.5에서 지난해에는 35.2로증가했다.

또한 음주운전자가 관련된 치사 교통사고율은 80년도의 30.1%에서 지난해에는 32%로 늘어났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모든 운전자중 58.7%는 음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시 또 하나의 사망요인은 안전벨트 불착용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나 승객의 치사율이 착용하는 사람보다 사망할 확률이 23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벨트 착용자의 86% 정도가 충돌사고시 부상당하지 않는데 반해 미착용자의 경우는 70%에 불과하다.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도로상에서 사망한 사람중 53.7%는 16세에서 34세의 연령층으로 계절적으로는 7월과 8월에 하이웨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장학금마련 디너파티

무도회"토요일저녁"열어

토론토에 무술학도를 위한 장학금 설치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완인태권무도회(명예회장 데이비드·크롬비 연방국회의원, 전 메트로·토론토 시장)는 10월23일(토) 하오7시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디너파티「토요일 저녁」을 뉴·서울(529 Bloor St. W. Tor.)에서 연다.(회비 $25)

이날 저녁식사와 더불어 태권도 시범, 강연 "태권도의 오늘과 문제점"(이경태), 특별출연으로 무용가 김미영씨가 선보이는 "5고무"(북 다섯을 두드리며 추는 춤)가 있고, 간간이 사교댄스도 곁들인다.

완인태권무도회가 장학사업을 계획한 것은 태권도 수련생들이「문」과「무」를 아울러 기르는 면학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무도회의 주역 이경태 사범에 따르면, 현재 한인 6명, 타민족 6명으로 이사진을 구성한 완인태권무도회는 태권도가 승부에 치우친 스포츠화한 오늘, 태권도를 본원의 정신인 무도로 유지, 발전시키고, 기술및 내용면의 과학화토 태권도 철학 확립을 목적삼고 작년에 창립되어 연방정부에 비영리 사단법인체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장학 찬조금등에 대한 면세혜택이 가능하다.

장학기금이 적립됨에 따라 점차로 장학규모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며, 장학금 수령자격은 교포 국민학생, 또는 중학생으로 과거 1년간 태권도 경험을 가졌고, 앞으로 1년간 태권도 수련을 계속할 결심이 선 학교성적 우수학생이다.

무도회는 회사자의 이름을 붙인 개인장학금(개인이 목돈기부)도 계획중이다.

◆이경태사범

삼복식품 대세일

$100에 25% 할인

토론토 북부의 한국식품가게 삼복식품(2437 Finch Av. W.)은 25% 할인의 특별세일을 실시한다.(하오4시 Open).

쌀, 라면, 배추, 무우는 도매가격으로 팔고, 다른 식료품들은 $100이상 사는 고객에게 25% 공제에 비데오테잎도 3일간 무료대여해 준다.

◆한국계 음악인으로 세계적 명성을 누리는 정경화씨. (30일 아침)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인터뷰

"음악외에 한눈 안팔고 완벽을 위해 노력 계속"

그녀의 바이올린 연주모습은『마성(마력)을 지닌 여자』라는 느낌을 주고, 그『마성』의 근원이 무엇일까하는 호기심을 준다.

30일 아침 1시간 동안 빠른 말로 쏟아대는 정경화씨의 자기 얘기는「인생에의 집중·집착도가 진한 사람」이며 동시에「가냘프고 섬세해 보이지만 음악과 사고에 있어서는 대단히 강하고 분명한 사람」(30일밤 정씨의 토론토·심포니와의 협연을 실황중계한 CBC-FM방송의 Arts National 프로그램 담당자의 평.)임을 재확인해 주었다. 【조미래 부장】

전날밤 랄로(Lalo)의 스페인 교향곡을 연주하는 모습을 맨 앞좌석에서 지켜본 기자는 어깨를 드러낸 화려한 보라색 드레스에 긴 머리를 흔들어대며 청중을 사로잡던 연주모습과 변화무쌍한 표정이 눈에 선했으나 정씨는 30대의 대학생같아 보였다.

"언니(첼리스트 정명화)는 가정생활의 행복도 원했기 때문에 결혼해서 애기를 낳고 키우느라고 연주경력에 지장이 있었지요. 그러나 저는 아무래도『세계 주요 연주가(One of the most important artist)』로 꼽힐 수 있게 되기까지는 100%가 아니라 1만%라도 음악에 몰두해야 하기 때문에 한눈을 팔지 않겠어요." 라고 말문을 연다.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지요. 저는 운명적으로 음악을 하도록 돼 있었던 것같아요. 기복과 갈등이 심했던 20대를 지나 30이 넘고나니 나자신을 수용(accept)하게 되고, 갈길이 분명해지는군요"

6, 7살 때부터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소리를 듣던 정씨는 12살때 미국으로 가서 줄리아드음악학교에서 공부했다. 졸업전 이미 연주가로서의 활약이 커 학교를 계속할 수가 없었고, 졸업장 자체가 무의미해질 만큼 유명해졌다.

유럽 데뷰공연은 한 때 그녀와 "친한관계"로 알려졌던 지휘자 안드레·프레빈의 런던·심포니와의 협연. 이 연주 며칠뒤 데카·레코드사는 그녀의 레코드를 제작했고, 그 이후로는 세계각지를 돌며 이틀에 한번씩 연주하는 세계적 연주가로의 궤도에 들어섰다. 현재는 연 1백회 정도로 연주횟수를 제한시켰다.

토론토·심포니와의 데뷰는 약10년전. 그 이후 여러차례 토론토에서 독주회를 가졌고, 2년전 세인트·로렌스·홀에서의 연주회가 가장 최근 것이었다.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때는 18~19세때.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보이지 않고, "싫어서라기 보다 하도 힘들어서" 음악에 회의도 많이 가졌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마디로 "행복"하고 자신을 굉장한 행운을 타고 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재능, 노력 이외에 연주가로서의 명성에는 행운도 뒤따라야 하니까.

뉴욕서는 이반·칼라미언 교수에게서 사사했다.(이 교수는 교회에 가기 위해 레슨날을 일요일 아닌 딴날로 해달라는 제자 요청에『나를 믿으라(I'm the church)』고 답변했던 사람이다.

현재의 유일한 스승은 "완벽을 지향하는 자신의 마음 뿐."

"열번 다시 태어난다해도 연주가가 됐을 것"이란 정도로 음악이 좋고 무대에 나가 연주하는 그 시간을 즐긴다. 좋아하는 것을 하며 과분한 보상을 받는 것이 항상 감사하다.

현재 쓰는 악기는 파르넬리우스. 7년간 쓰던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바꾼 것은 남성적이고 어둡고 강렬한, 힘껏 연주하면할수록 좋은 소리를 내는 파르넬리우스의 특징이 자기 연주스타일에 더 잘 맞기 때문.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바이올리니스트는 없지만 어렸을 때는 야샤·하이페츠와 크라이슬러를 좋아했었고, 현재는 곡마다 연주마다 연주가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음악보다는 연주가의 외모·복장등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하는 평론가들에게 불만도 있었지만 경력이 깊어가니 점점 음악자체에만 중심을 두어주는 것같아 그런 점에서 나이가 드는 덕을 본다. 비평에 신경이 안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비평가의 수준을 "비평"하며 읽는다.

(침대옆에 뉴욕타임즈, 글로브·앤드·메일지등이 놓여있었다.)

2년뒤까지 연주 스케줄이 짜여 있지만 지난 여름 뉴욕에서 명화·명훈씨와 함께 3남매가 가진 한인청소년 음악캠프를 매년 계속할 생각이다. 재능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즐겁고 보람있다고 생각한다.

로이·톰슨·홀의 음향시설은 연주하면서 자기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어 좋았고, 토론토·심포니는 "아주 잘한다"고 본다.

특히 지휘자 앤드류·데이비스의 예민하고 역량있는 지휘와 단원들의 민감한 반응을 높이 평가한다.

고향같은 토론토에의 향수

(LA에서) 권순창

이 글은 전 토론토 교포로 실험인협회장, 사진협회 부회장, 문인협회 창설멤버로 공적 활약이 컸으며, 문필활동도 활발했던 권순창씨의 최근 통신이다.(편집자)

〈필자〉

세월이 빠르군요. 언간 수년이 흘렀군요. 일찌기 혜초대사가 인생은 한 조각의 뜬구름이라고 했듯이 덧없고, 부질없는가 봅니다.

그러나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그리고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밤엔 더욱 나는 생활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걸 봅니다.

저 바다에 뜬 흰조각배, 공원에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인생은 참으로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믿고 싶읍니다.

눈나라에서 눈이 쌓이는 거리에서 살던 기억들이 납니다. 토론토의 여름은 참으로 짧읍니다. 그 짧은 여름을 붙들어 오려고 밖으로 뛰어 나가던 숱한 친구들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고향과 같던「제5계절」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4계절을 살고도 수련의 길을가는 5계절의 인생들, 거기엔 모진 가시밭길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젠 꽃도 피고, 태양이 비칠때도 된 것같읍니다. 그러나 아직은 봄이 오긴 이른 2월쯤 되었을까요. 그래도 눈속에서 붉은 매화가 피게 될 것입니다.

초심(初心)의 바다

일전 어느 모임에 들렀다가 춘원·이광수씨의 혈육이 되는 여자분을 만났다.

그때 마침 이분을 대함으로 나는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일 하나를 생각해냈다. 그것은 감나무 위에서 내려다 보는 강줄기였다. 강은 햇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치 꿈나라에 아련히 펼쳐진 그렇게도 환상적이고, 표현할 수 없는 환희같은 것이었다.

어릴 적 우리집은 낙동강이 환하게 내려다 보이는 언덕 중턱에 자리잡고 있었다. 펼쳐진 시가를 지나면 강, 그리고 그 뒷쪽엔 높은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산그림자, 푸른 그림자가 끝나는 소나무 숲속에 고운·최치원 선생이 학문을 닦던 고운사(孤雲寺)란 절이 있었고, 그 위로 산맥의 주봉인 문필봉(文筆峰)이란 산이 높이 솟아 있었다.

이 산을 마주 보던 우리집 뒷뜰엔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나는 항시 그 나무위에서 살다시피 하였다. 바람이 부는 날에도, 황혼이 지는 저녁 무렵에도, 심지어 비가 오는 날에도 가끔은 나무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곤 하였다.

나무위에서 바라다 보는 세계는 나의 우주요, 내 어린 시절의 풍부한 꿈의 나라였다.

어느해 가을 어느날은 유독 햇빛으로 눈부신 강줄기와 푸른 산맥이 끝나는 곳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어떠한 동네가 있을까 궁금하여 몹시도 애태우던 기억이 난다.

춘원이 어린 시절에도 바다를 몹시 그리워했다. 멀리 멀리 있는 바다가 보고 싶어 하루는 집뒤 높은 감나무에 올라 아무리 사방을 둘러봤으나 끝내 바다는 찾을 수 없었고, 이러한 실망으로 종일 울고 지냈다는 일화가 있다.

◆

항상 도화지에나 푸르게 그어대던 바다, 신비로 찬 넓고 넓은 물의 세계, 책과 얘기로만 듣던 그런 바다라는 것을 처음 본 그 순간이야 말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엄청난 감격을 불러오는 순간이었다. 산골동네에서 앞뒤로 산만을 바라보며 자랐던 어린 소년에게는 참으로 감당키 어려운 환희의 순간이었다.

그후 서울에 와서 살게 됐을 땐 안개낀 인천바다를 보러 차를 타고 나들이를 가곤 했다. 물론 애인이 같이 있을 때 더욱 좋았다. 손을 잡고 안개낀 해변을 서성거리던 젊은 날의 추억은 두고 두고 잊을 수 없는 인생의 값진 보물이기만 하다.

같이 다니던 그 여인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다. 무척이나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럴까, 지금도 이렇게 비가 오는 저녁이면 생각이 난다. 약간은 창백한 얼굴에 말수가 적고, 항상 눈 언저리에 우수같은 것이 끼어 있긴 했지만 해맑은 여자였다.

그때 우린 거리를 쏘다녔고, 가끔은 심각한 얘기들을 주고 받았다. 그리고「돌체」같은 음악실을 들락거리기도 했는데,「가을잎」이나 슈벨트의「겨울나그네」같은 가볍고도 짜릿한 곡목들을 신청해 들으며 종일을 음침한 다실에서 지낸 때도 있었다.

바하나 모찰트의 무거운 곡들이 울려 오면 그 무게에 눌려 그만 여인의 손을 꽉 잡고 눈을 감아버렸다.

거기엔 바다가 있었다. 파도가 출렁이는, 갈매기가 우는 푸른 바다. 폭풍의 거센 얼굴과 잔잔한 호수의 마음이 있는 그렇게 바다의 변화 많은 표정을 보며 나는 정처없이 걷고 있었다. 그저 걸어가고 있었다.

◆

서울을 마지막 떠나던 날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비행기가 막 이륙할 때 나는 그 여자 생각으로 꽉 차있었다. 우리는 결혼이라든지, 미래같은 걸 약속한 일이 없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기 전 어느 때인가부터 상당히 뜸한 사이가 되어 있던 터였다. 그렇게 된 것은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오래 사귀어서 싫증도 나고, 일도 바쁘고, 또 새로운 상대가 생기는등 복합적인 사연이 깔려 있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막상 김포를 떠나는 시간엔 가슴이 몹시도 설레었었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가고 난 뒤 그녀에게서 한통의 편지가 왔다. 곧 결혼을 하게 된다는 통보였다. 원망으로 가득찬 편지지 위에는 눈물방울들이 얼룩져 있었다.

그날은 술을 잔뜩 퍼마시고 쓰러져 버렸다. 참으로 허전하였다. 아무것도 없이 텅빈 밤바다와 같은 공허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그때 나는 그녀의 눈물자국에서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를 보고 서있었다. 그 여자는 바다가 되고, 이 바다는 율동하며 내 가슴속으로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것은 아무렇게도 오염되지 않은「초심(初心)의 바다」였다.

어린 시절 처음으로 보게 되었던 그렇게도 감격스럽고 환희에 찼던 바로 그 바다였다.

그후 여인의 눈물은 영원히 바다가 되어 버리고, 그 바다는 항시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개업 1 주년기념 영업안내

오는 10월 6 일로서 저희 은행은 개업 1 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읍니다. 그간 교포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짧은 시일내에 확고한 영업기반(자산규모 4천만달러)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서어비스내용을 대폭 개선키로 하였사오니 배전의 애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982. 10. 6.

아 래

※캐나다금융기관보다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대출금리를 보장합니다.
※유리한 조건의 주택모기지(Mortgage)와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Car Loan)을 취급합니다.
※캐나다 세이빙스본드(Savings Bond)를 판매합니다. (10월중예정)
※야간예치함(Night Depositor)를 설치합니다.
※업무를 전면 컴퓨터화합니다. (현재 70% 실시)

캐나다 한국외환은행
KOREAN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P.O.BOX 402, TOR., ONT. M5X 1E3
364-2890

블루어지점
629 BLOOR STREET WEST
TORONTO, ONTARIO M6G 1K8
533-8593

영업내용

예금업무 :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계및 기업당좌예금, 저축예금
대출업무 : 사업자금대출, 무역금융, 일반소비자금융, 주택모기지, 자동차구입자금대출, 적금대출, 당좌대월
수출입업무 : 신용장 개설 및 통지, 선적 서류매입
송금업무 : 전신송금, 우편송금, 모니오더
기타업무 : 투자 · 세무상담

직원채용안내

나날이 성장하는 저희 은행에서는 사세확장에 따라 유능한 여자직원 약간명을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력서와 사진을 보내주십시요.
은행경력이 있으신 분은 우대합니다.

※캐나다은행이 취급하는 모든 업무를 더욱 신속 친절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이혼도 경기타나?

불경기속 이혼율 저하

(워싱턴)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부부가 헤어진다는 것은 여러모로 힘든 모양으로 최근 미국의 이혼율이 약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새로운 정부통계가 발표되었다.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이혼율이 『경제회복과 더불어 서서히 상승할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이들도 10년전과 같이 대단한 속도로 이혼율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혼자의 수효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으나 지난6월까지 1년간 이혼율은 1천명당 5.2명의 비율로 그 전해보다 2%가 감소된 것이라고 전국건강통계센터가 밝혔다.

김명숙 회계사무소 사무실 이전

김명숙 회계사무소가 사무실을 10월4일부터 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으로 이전한다.

새 전화번호는 534-3760, 주소는 627 Bloor St. W. #302이다.

이전기념 리셉션은 10월 중순경 가질 예정이다.

현재 CGA 코스 5학년 과정을 밟고 있는 김씨는 지난 2월 강찬영변호사 사무실을 나누어 썼었다.

진명여고, 이대 경영학과 출신인 김씨는 가족으로 남편 김연수 신용조합 상무와 2아들을 두고 있다.

대한부인회 바자 16일 4시 장로교회

캐나다한인총연합 대한부인회는 오는 16일(토) 상오11시부터 하오4시까지 한인장로교회(1183 Davenport Rd.)에서 바자회를 연다.

노래자랑도 곁들일 이번 바자회 출품품목은 떡종류, 된장, 고추장, 빈대떡, 밑반찬, 젓갈류이며, 식사류는 곰탕, 진주 비빔밥이 $3씩에 판매된다.

1장에 $3인 복권 당첨상품에는 1등에 편물로 짠 이불1개, 2등 흑백TV, 3등 장미쌀 50파운드, 4등~10등 장미쌀 25파운드 등이다.

•문의처 : 494-1856(양혜신)

◆지난 28일 저녁 토론토의 로열·욕 호텔에서 열린 조흥은행 토론토영업사무소 개설 축하 리셉션에서 서울서 온 이헌승은행장(중앙)이 이유상이사(좌)및 이원순 토론토소장(우)과 함께 손님을 맞고 있다. 이날 리셉션에는 캐나다 금융계인사, 교포실업인등 2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金聖鍾 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79>

얼굴없는 死者 ③

전국의 수사요원들 「105본부」에 집결

살인과는 그점을 중점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강력한 중앙집권식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있었다。서울에 상설수사본부를 설치해두고 전국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들을 손 관장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공조체제를 최대한으로 발동시키고 있었다。그러니까 서울의 상설수사본부는 총사령탑인 셈으로, 수사요원들은 그곳을 센터라 부르고 있었다。공식적인 명칭은「105본부」지만 편리하게 그저 센터라고만 칭하고 있었다。

『예상했던 것이지만…오세철은 가짜야。주소도 물론 가짜구。서울역에서 발송한 날짜는 12월4일로 밝혀졌어。발송자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머리카락 하나없는 완전한 대머리의 사나이가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퉁퉁한 몸을 검정 가죽잠바로 감싸고 있었는데 그모습이 흡사 거대한 바위덩이 같았다。눈이 작아서 얼굴에 표정이 드러나지 않는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었다。센터를 지휘하고있는 그는 부하들 사이에 대머리라는 별명으로 통하고 있었는데, 인격면에서는 넘혹한 사나이로 정평이 나있었다。

『과거에 이런일이 있었나?』

『토막건은 종종 있어왔지만 토막낸것을 전국의 역에다 수하물로 탁송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던 걸로압니다。』

가장 나이들어 보이는 여수쪽 사나이가 말했다。대머리는 파이프에 담배가루를 눌러담았다。

『신문에 대서특필 될거야。지방에서 주의를 하지않는 바람에 기자들이 눈치를 채고 달려들었어。너무 빠른 감이 있지만 할 수없지 뭐。하지만 지금부터는 입들을 조심하도록。수사에 대한 발표는 센터에서 알아서 할테니까, 일절발설하면 안돼。그런데 범인은 왜 시체를 토막내서 각역에다 탁송했을까? 이상한 놈 아닌가?』

아무도 거기에 얼른 대구하는 사람이 없었다。그때 달성에 앉아있던 나이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생각에는 다음 두가지로 추측할수 있을것 같습니다。하나는 범인이 대우 잔인무도한 놈일 경우입니다。그런놈은 자신의 솜씨를 숨로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오히라하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경찰에 도전적으로 나오기 십상입니다。토막낸 시체를 한곳도 아닌 여러곳에 보아란 듯이 나누어 송했다는것이 다분히 그런 냄새를 풍기고있읍니다。』

『음, 듣고보니까 그런것 같군。또 하나는 뭔가?』

『다른 하나는 시체를 처리할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열차탁송을 이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피살자는 매우 덩치가 커서 옮기는 것이 제일 문제였을 겁니다。일단 사람을 죽여놓고 보면 살인자는 당황하게 마련입니다。시체를 유기하기 좋은 산속 같은데서 처리했다면 시체처리문제로 당황할 필요가 없겠지요。그렇지 않고 집단같은데서 살인을 저지를 경우 빨리 시체를 치워야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그런데 덩치가 크니 옮기는 것이 쉽지가 않읍니다。우선 토막을 시간도 없읍니다。생각끝에 토막을 내서 운반하기로 합니다。범인은 토막낸 것을 라면 박스에 담았읍니다。하지만 어디다가 버리느냐 하는게 또 문제였읍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범인은 시체를 갖게다가 버리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봅니다。』

朴 男 그림

교민동정

◆이장성(극단 "얼"대표)=지난 25일 꽃가게 전문가 J씨와 동업으로 꽃가게를 개업했다. 장소는 영×웰스리 남쪽에 파킹장을 시로부터 rent했는데, open하자마자 손님이 밀어닥쳐 기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씨는 곧 Green House로 개조해서 보다 많은 손님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원장호(체육회 캐나다지부이사장)=교민중에서는 가장 큰 가게중 하나를 갖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체인 웨딩·드레스 취급상점을 개업했다. 원래 원씨 부인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웨딩·드레스 전문가로 일을 했는데, 이제야 제대로 길을 찾았다고. 교민업종으로는 최초인 이 웨딩·드레스 사업의 많은 교민들의 애용을 바라면서 최대봉사를 아끼지 않겠다고.

합작집<이민문학·4>

12명의 30편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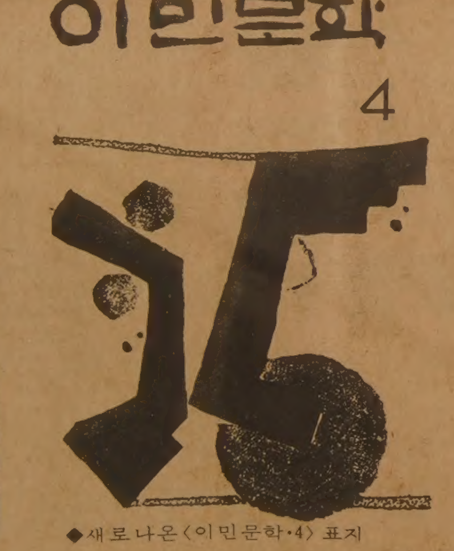
이민사회의 악조건하에서 문학작품을 책으로 엮어 발간하기는 극난한 일인데 캐나다한국문인협회(회장 조정대)는 그 어려운 합작집을 또 내놓았다.

이번에 국판·68면으로 엮어낸 합작집 「이민문학 제4집」은 81년도의 창작들을 모은 것으로 집필회원 12명의 작품 30편을 실었다.

박충도, 손성호씨가 산파역을 맡은 이번 제4집은 제자를 이동열박사가 쓰고, 표지화는 손성호회원이 맡았다.

이번 수록작품은 시 21편(이석현·박순배·조정대·박옥선·손성호·변은숙·김대호), 수필 5편(홍기만·유인형·박순배), 단편 2편(이태준·박성민), 평론 2편(박충도)의 30편이다.

지난 77년초 토론토에서 발족한 문협은 합작집 4권【1)<새울>-77년, 2)<이민문학>-79년, 3)<이민도시>-80년, 4)<이민문학·4>-82년】을 냈으며, 신춘문예 5회(78~82),「문학의 밤」한번(80년12월)및 지난 5년간 수십차례의 교민을 위한 문화강좌를 실시했다.



◆새로나온<이민문학·4> 표지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 : 243-9544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1391 WESTON RD

훼밀리·닥터 (의사 왕운린)
(B 968-1543·R 363-9196)
600 SHERBOURNE ST. #402
월~금: 오전10시~오후7시
토: 오전11시~오후3시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병헌

"미와 꿈의 전당"

웨딩·드레스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인생의 꽃다운 시절을 장식하는 최고의 환희는 젊음의, 꿈이 만개하는 결혼이라 하겠읍니다.

여기 그 보람찬 꿈을 맺게하는 웨딩 드레스 가게를 차려, 이민현장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인생길로 출발하는 아가씨들의 복된날을 우아하고 품위있는 웨딩·드레스로 감싸 드리고자 하오니 한번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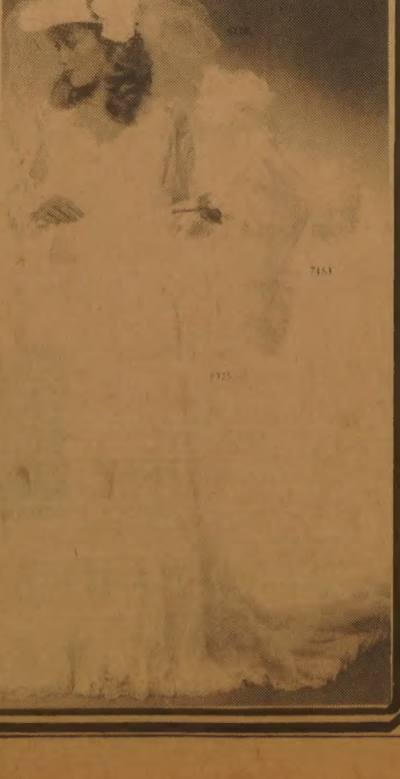
대표 원장호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청첩장.

※결혼을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하신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월~목 오전8시~오후8시 금~토 오전8시~오후9시 일 12시~오후6시

1503 Bayview Ave. ☎ 485-9419 488-0639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실비아·원



"商去來질서 확립하도록"

全대통령指示 消費者·企業협조 對策세워야

輸出부진… 建築은 활발

景氣指標 1·0… 物價 4·5%로 安定

全斗煥대통령은 29일 『우리나라는 商去來질서가 매우 문란한것 같다』고 지적하고 『86년과 88년의 아시안게임및 올림픽행사를 앞두고 소비자와 기업의 협조를얻어 빠른시일안에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全대통령은 이날 상오 경제기획원 회의실에서 월례경제동향 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위기에 가까운 세계경제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정부도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전국민이 세계경제의 實相을 정확히 인식해 일치단결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全대통령은 또 『우리나라는 국토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山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국토관리나 산림보호의 측면을 살리면서 草地를 최대한 조성하는등 山地개발에 힘쓰도록 하라』고 지시했다。全대통령은 『모든 시책은 조급히 서둘면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므로 충분한 기초조사가 앞서야 한다』이라고 강조하고 『농촌공업개발도 立地여건을 충분히 검토해 경제성이 있는 곳부터 시범단지를 조성、운영한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했다。全대통령은 이날 회의가 끝난뒤 朴宗圭(35·全北益山郡五山面北參새마을지도자) 金忠植씨(52·忠南錦山농업고등학교교장)에게 새마을훈장 協同章을 주었다。

金副總理、經濟동향 보고

한편 金埈成부총리는 이날 8·9월중 경제동향을 보고하면서 內需호전으로 경기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수출이 여전히 부진해 전반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2~3개월후의 경기동향을 나타내주는 경기예고지표가 지난해 8월이후 처음 1·0으로 올라서 불황기점을 돌파했고 景氣先行指數도 8월중 0·7%(前月比) 증가, 연속 6개월째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수출은 9월들어 25일현재 1·6%감소(前年同月比) 했으며 수출신용장 내도액도 2·2%가 줄어 계속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표들이 호전되고 있는것은 통화가 많이늘고 건축이 활발(8월중주택건축허가면적 前年同月比52·1%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출이줄고 생산활동이 주춤(前月比2·7%감소)해 경기의전반적인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물가는 계속안정세를 보여 도매가 9월중 0·4%、올들어9월말까지 2·1%올랐고 소비자물가는 9월중 0·5%、올들어 9월말까지 4·5%상승에 그쳤다。

국제수지는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줄어드는바람에 경상수지적자폭이 2억1백만달러에 그쳤고 외환보유액은 8월말현재 60억7천2백만달러에 달했다。

통화동향은 대기성자금이 늘는 경향을보여 9월중(25일현재) 저축성예금이 1천3백95억원 늘어난데반해 요구불예금이 6천3백29억원이나 증가했으며 단자회사수신은 1천2백88억원이 줄었다。

이디오피아 建設相 全대통령 接見환담

全斗煥대통령은 29일하오 청와대에서 이디오피아의 카사·게브레건설부장관을 접견하고 환담했다。(사진)

이자리에는 金宗鎬 건설장관이 배석했다。

公職者 자율淨化定着 주력

社會淨化委 3大否定심리誘發요인 우선 除去

社會淨化위원회는 3大否定心理추방을 위해▲공직자는 부패심리▲기업인과 경제단체, 소비자등은 물가오름세심리▲학생과 운수、관광단체、일반인등은 무질서심리를 추방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키로 했다。

金聖基사회정화위원장은29일 이같은 3대 부정심리 추방운동 추진방침을 밝히고 『모든 司正 또는 監査기관은 3대否定심리추방에 초점을 맞춰 단속이나 司正활동을 하되 금년말까지 課長級이상 공직자의 자율적인 淨化가 정착될수있도록 힘을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단속과함께 부정심리를 유발할수있는 요인이 되는 각종 제도와 환경의 개선노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특히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설개선을위해 줄서기 시설과 각종 정류장、차선、횡단보도、신호체계、行樂地나 경기장의 汚物처리시설、화장실등을 보완하거나 확충하고 주요시장의 환경을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회정화위원회는 아직도 우리생활구석구석엔▲「나하나쯤이야 괜찮겠지」「모로가도 서울만가면 된다」는등의 무질서심리▲「돈이나 背景이 있으면 안되는 일이 없고 법으로 안되는 일인데도 돈을 안주었기때문에 안된다」「사업을 하려면 먼저 공무원을 등에업어야한다」는등 부패심리▲「물가는 으레 오르는법」「내가 내돈쓰는데 어때」등으로 표현되는 물가오름세심리가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淨化委는 특히 무질서심리의 추방을위해 각급정화위원회 주관으로 질서를 모범적으로 지키는 운전자나 관광운수업종사자를 선발、질서市民像을주어 장려하고 初·中·高校生을 대상으로 학생생활교육을 강화하며 공직자들에의한 질서의 垂範과 무질서현장을 고발하는 자세를 함양토록하고 매달 「질서의 날」을정해 自律질서의 거리를 시범운영토록할 방침이다。

西獨외국인勤勞者 歸國장려조치계획

中道右派집권경우

【본=聯】서독의 基民黨(CDU)、自民黨(FDP)、基督社會同盟黨(CSU)등 3개 중도우파정당들이 오는 10월1일 헬무트·슈미트수상에대한 하원의 불신임표결에서 승리、聯政을 구성할경우 이 새로운 서독중도우파연립정부는 현재 서독에서 취업중인 외국인근로자들의 귀국을 장려하는 조처를 즉각 취할 계획인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CDU·FDP·CSU등 3개정당이 이날합의한 그들聯政의 경제정책에 따르면 서독에서 취업중인 외국인근로자들이 서독을 떠날 경우 가족수당、실직수당등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일시불로 지불받게 된다。

콜基民黨首 首相후보 옹립

西獨3野黨、슈미트不信任표결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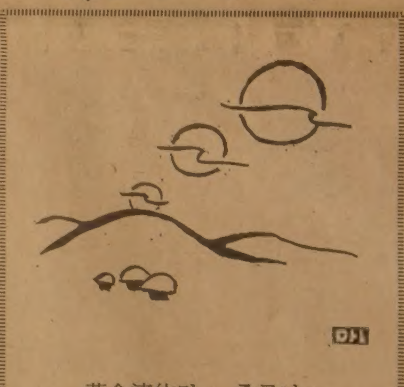
【본AP=聯】서독의 基民(CDU) 自民(FDP) 社同盟(CSU)등 3개 중도우파정당들은 28일 社民黨의 헬무트·슈미트수상을 몰아내고 헬무트·콜 CDU당수(52)를 새수상에 옹립키위해 오는10월1일 슈미트수상에 대한 불신임동의안을 표결에 붙일것을 리하르트·슈뒤를러하원의장에 공식요청함으로써 이 下院표결에서 슈미트수상정부는 집권 8년만에 붕괴될것이 확실시된다。

이에따라 이들 3개중도우파정당들의 연립정부가 탄생할것으로 예상된다。이 3개중도우파정당들중 CDU와 FDP는 이날 하오 콜당수와 볼프강·미슈니크FDP원내총무의 서명에든 슈미트수상 불신임동의안을 공식적으로 슈퇴틀러下院의장에게 제출했으며 이보다 약10분전에는 한스·디트리히·겐셔FDP당수와 프란츠·요제프·슈트라우스CSU당수가 연립합의문서에 서명했다。

이보다앞서 이날 FDP소속 하원의원54명은 새로운중도우파聯政의 수립을 지지하기로 34-18、기권2로 표결함으로써 10월1일의 下院표결에서 콜당수가 승리할수있는 길을 터주었다。

콜당수는 10월1일의 下院표결에서 새로운 수상으로 선출되기위해서는 지난17일 社民黨과의 聯政에서 탈퇴한 FDP의 의원들로부터 23표만을 획득하면 된다。

社會漫評



黃金連休라… 좋구나…

独立紀念館건립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三和페인트工業 (尹熙重대표 임직원일동) 1千1百23萬원

◇尹熙重씨

◇高貞勳씨

◇吳太煥씨

陸軍士官學校 士官生徒 일동 4백11만원
大元電器産業 金命吉대표 外 3백35만원
美源商事(株) 金鎭璜대표 外 3백3만원
東信·瑞泉物産 崔晏準대표外 2백 만 원
서울중화국교 이창섭교장 外 1백98만원

<29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三和페인트工業(株) 대표이사 尹熙重씨외임직원一同=1천1백23만7천6백30원
▲陸軍士官學校士官生徒一同=4백11만1천4백80원
▲大元電器産業(株) 대표이사 金命吉씨외임직원一同=3백35만원
▲美源商事(株) 대표이사 金鎭璜씨외 임직원一同=3백3만5천1백25원
▲東信産業振興(株)·瑞泉物産(株) 대표이사 崔晏準씨외임직원一同=2백만7천1백20원
▲서울중화국교(교장 이 창섭선생) 전교생 (대표 6년 이수진·김지수 5년 최광찬 인솔 박태혁선생)=1백98만7천4백70원

【소년한국일보접수】

▲新政社會黨 高貞勳총재外 黨職者一同=1백53만5천원
▲서울재현고등학교교직원및 학생一同(2차분)=1백46만7백60원
▲慶熙高等學校(교장 宋在明) 교직원및 학생一同=1백37만1천6백원
▲(株)京仁洋行·合成대표 金東吉씨외 종업원一同=1백20만원
▲(株)三逸企業公社대표이사 朴星奎씨외임직원一同=1백20만4천원
▲印度洋交易(株) 대표李八鎔씨외임직원一同=1백19만1천3백70원
▲(株)三益航空대표이사 吳太煥씨외임직원一同=1백12만6천4백50원
▲圓佛敎서울교구奉公會一同=1백8만3천원
▲鞍山山岳會회장 宋炳文씨外 회원一同=56만5천원
▲江東區盤浦1洞삼호가든아파트주민一同=44만원
▲삼화실업(株) 安城공장 종사원 一同=36만4천6백50원

【安城지국접수】

▲京畿道華城郡 삼괴지구 축산인친목회원(회장송권선)=30만원

【조암지국접수】

▲(株) 진원무역임직원一同=27만4천7백40원
▲한강보울링장원一同=21만5천원
▲합성상회 대표 박은하씨=20만원
▲仁川(崇義·도원) 친목회장 정희문씨外 회원一同=20만4천원

【仁川支社접수】

▲十字星마을회원一同=20만원

◇재현고교 대표

◇경희고교 대표

◇안산산악회 대표

◇중화국교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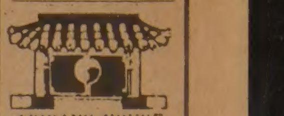
新政社會黨 高貞勳총재 外 1백53만원
서울재현고교 교직원·학생 1백46만원
慶熙高校 宋在明교장 外 1백37만원
京仁洋行·合成 金東吉대표外 1백20만원
三逸企業公社 朴星奎대표 外 1백20만원
印度洋交易 李八鎔대표 外 1백19만원
(株)三益航空 吳太煥대표 外 1백12만원
圓佛敎서울교구 奉公會 1백8만원
鞍山山岳會일동 56만원
삼호가든아파트住民 44만원
삼화실업 安城 공장 36만원
삼괴 축산인 친목회 30만원
(株) 진원 무역 27만원
한강 보울링 장 21만원
합성상회 박은하씨 20만원
崇義·도원친목회 20만원
十字星마을원회 20만원

地平線

포클랜드전쟁때 싸운것은 英國과 아르헨티나만이 아니었다。美國과소련도 눈에 띄지 않게 맞싸웠다。그것도 高空에서 宇宙衛星으로다。소련은 아르헨티나軍이 포클랜드로 진격하기 이틀전에 電波도청用 衛星을 쏘아올렸다。진격당일에는 고도의 영상해독능력을 가진 스파이衛星을 또 하나 발사했다。그후에도 계속 하며 포클랜드戰爭동안 10개이상의 위성을 쏘아댔었다。▼美國은 그때마다 소련위성들의 위치、기능、활동을 마치 손바닥의 구슬을 보듯환히 들여다보고 있었다。소련衛星위를 돌고있는 美國衛星이 宇宙新人生들을 감시하고 있었기때문이다。프랑스製 엑조세가 英國셰필드순양함을 향해 발진할때 그 레이다의 전파를 소련위성이 파악했다。동시에 英國군함이 妨害전파를 발사한것을 또 포착해서 암호전파로 소련情報艦에다 알린다。이것을 美國衛星이 도청하여 즉시해독 본부로 보낸다。소련衛星은 美國衛星의 이 스파이행동을 포착、자기네 본부에다 되 보고를 하고。▼이런 끝없는 情報戰이 美·蘇의 宇宙위성간에 전개된 것이다。그러고 보면 宇宙위성간에 비밀이란 하나도 없겠다。서로가 서로를 빤히 알고있기 때문이다。그래서 요즘은 상대를 속이는 장치를 발명하고 한편에서는 속여도 속지않는 장치를 개발하고있다。電子戰의 用語로는 ECM에대해 ECCM을 개발한다는 것이다。특히 「킬러衛星」이 등장하면서 이런 방어장비개발은 더욱 촉구되는 실정이다。▼美國의 한 政策연구기관은 최근 킬러衛星 4백32개를 우주에 배치하여 「高空戰線」을 형성하는 작전계획을 수립、議會에 제출할것이라고 알려졌다。美國은 이미 지난 6월21일께 콜로라도·스프링즈市근처의 피터슨空軍基地에 美宇宙사령부를 설치하였다。앞으로 宇宙軍事基地가 건설되어 宇宙軍이 그基地에 주둔하게되면宇宙주둔軍과 地上軍을 통합지휘하기 위해서다。이제 宇宙의 新武器인 킬러衛星의 配置作戰計劃까지 성안되면 미래의 宇宙戰 앞으로 인류는 한발성큼 다가서게 된다。▼「미래의 高空戰線」이란 책을 쓴 미국의 대니얼·더드니는 『킬러衛星이 地上軍備査察용衛星을 파괴케될 경우 세계의 軍備抑制는 파탄에직면할것이다』고 경고하였다。파탄에 직면한것은 軍備抑制뿐이 아닐것같다。미국에서는 77년부터 軍當局의宇宙개발비가 民間기관것을 상회하고있고 蘇聯도 「코스모스」 시리즈라는 軍事用위성開發에 열을 올리고있다。「高空戰線」이란 作戰計劃이 議會에서 어떤반응을 불러일으킬지 두고볼 일이다。

한국일보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불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저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우리는
26년이상
한인 손님을 위해
봉사하고 있읍니다

WE SERVE
KOREANS FOR
OVER 26 YEARS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석이
준비 되어 있읍니다.

SAI WOO™
영업시간 :
11 : 30a.m.
2 : 30a.m.

ALOHA RESTAURANT
영업시간 :
11 : 30a.m.
11 : 30p.m.

SAI WOO RESTAURANT & TAVERN
130 DUNDAS ST.W. TOR ☎ : 977-4988

ALOHA RESTAURANT & TAVERN
123A DUNDAS ST.W. TOR ☎ : 977-3438

東西관계 13년만에 새波紋

슈미트退陣후 예상되는 世界정치氣象圖

蘇는 우려·美선 內心환호

國際焦点

헬무트·콜 기독교민주당(CDU) 당수의 執權과 함께 서독에 保守우익연정이 재등장하게 거의확실해짐에 따라 유럽과 세계정치기상도에도 커다란 파문이 뒤따를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퇴진하게될 사회민주당(SPD)―자유민주당(FDP)의 좌파연정은 지난69년 빌리·브란트 前수상의 東方정책으로 집권에 성공한이래 소련과 협력관계를 강화유지하고 미국에 의존하는 외교정책 탈피를 계속 추구해왔다.

슈미트수상은 카터 前대통령을 종잡을수없는 인물로, 레이건대통령을 아마추어정치가로 비유하면서 자신이 東西정치의 중개자임을 자부해왔다.

하지만 새로 등장할 헬무트·콜 기민당수는 故아데나워 수상에서 에르하르트로 이어지는 서독 보수우익정권의 主流로 자처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서독의 보수우익정권은 親美·反蘇 색채를 강하게 띠어왔다.

헬무트·콜 당수는 슈미트수상이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지나치게 희생시켜가면서 소련및東歐국가와 관계개선에 주력하고 있다고 줄곧 비난해왔다.

疏遠했던 對美관계 青信號

헬무트·콜의 등장으로 좌파연정아래서 원만하지못했고 때때로 疏遠하기조차 했던 미국과 독일과의 관계가 보다 부드러워질것이라는 전망이나오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다.

이는 슈미트의 퇴진을보는 미국과 소련 양국의 상반된 입장에서도 읽어볼수 있다.

소련은 슈미트政이 붕괴되자마자 黨기관지 프라우다紙를 통해 좌파연정붕괴가 가져올 파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의 입장은 이와는 퍽 대조적이다. 미국은 내심으로 헬무트·콜의 등장에 환호를 보내고 있다.

중거리미사일의유럽배치에 반대하는 반핵평화시위와 갈수록 드세지고있는 反美사조에 대한 대책에 부심해오던 미국은 對美강경론자인 슈미트가 퇴진하면 별로 손해볼게 없는 입장이다.

蘇, 믿을만한仲裁者 잃는셈

독일의 우익선회가 국제정치기상도에 가져올 파장을 재려면 독일이 국제정치무대에서 갖는 특수위치를 고려해야만 한다.

흔히 독일은 東西관계를 재는 바로미터로 불린다.

소련및東歐圈과 경제적·정치적 유대를 강화한 빌리·브란트의 東方정책은 東西화해의 시발점이 되었다.

독일을 경계로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과 바르샤바조약군은 무력으로 대치하고 있다.

소련과 서유럽과의 경제협력강화도 주로 서독을통해 이뤄지고 있다.

동서의 交叉路로 불리는 독일이 右旋回한다는것은 미국과 소련양국에 각각상반된 영향을 준다.

미국은 도대체 미국의말에 귀기울이려 하지않았던 거물급좌익정객이 보다 親美성향의 우익정객으로 교체되는 행운을 안았고 반면 소련은 믿을만했던 동맹 중재자한명을 잃어버리는 처지가 된다.

同病相憐 佛미테랑도 衝擊

슈미트의 퇴진에 당황해하는 나라로는 소련말고도 프랑스가 있다.

초록은 동색인지라 미테랑이 이끄는 프랑스사회당정권은 같은 사회주의정당인 사민당의 패배에 큰충격을 받고있다.

특히 프랑스 사회당정부는 작년5월에 執權한이래 계속인기가 떨어지고 있던 참이라 더욱 큰 충격을 받고있다.

슈미트가 물러나게된 가장큰 원인이 인플레와 실업으로 인한 경제난이라는 점 프랑스 사회당정부를 한층 더 긴장 시키고 있

미테랑은 執權초기에 급격한 국유화조치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추진하면서 높은인플레와 많은 실업을 초래하여 프랑스경제를 악화일로에 몰아넣었다.

기민당은 집권하면 사회보장부문지출을 대폭줄이고 기업의 稅부담을 덜어주는 등 경기부양책을 시도할것으로 알려졌다. 서독版 레이거노믹스이다.

또 서독에 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귀국을 장려하는 조치를 취할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독에있는 4백60여만명에 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서독인의 실업률을 높이는 한요인이 되어왔다.

하지만 서독의 保守·우익 연정 재등장이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대폭증액한다거나 60년대말부터 추구해온 東方정책에 어떤 획기적인변화를가져올것같지는 않다.

기민당이 안보와 국방문제에 대해 사민당 보다 민감한건 틀림없지만 악화일로에 있는 서독자체경제의 치유에 바빠 국방비증액에는 엄두를 못낼 입장이다.

東方정책은 15년동안 독일 외교정책의 바탕을 이뤄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것으로 보인다.

또 슈미트와 미국정부간에 걸린 가장큰 현안문제였던 시베리아가 파이프라인을 둘러싼 수백억달러 거래도 별영향을 받을것같지 않다.

기민당은 가스파이프라인 공사에 참가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강력한 후원을 받고있기 때문이다.

사민당의 패퇴가 유럽전체 사회주의정당의 퇴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지난28일에 있었던 스웨덴 총선에서는 사회당의 팔메黨首가 재집권에 성공했고 앞으로 실시될 스페인총선에서도 사회당의 집권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게 대두되고 있다.

【李炳圭기자】

◇右派들의 對坐。서독의 헬무트·콜基民黨首㊨가 지난번 미국방문때 레이건 美대통령은 그를 백악관으로 초청,회담을 가졌었다。

메아리

통큰 소리

金昌悅 <編輯委員>

작년 10월 일본 마쓰시다전기의총수 마쓰시다·고노스께(松下幸之助)씨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때, 마쓰시다와 관계가 있는 우리나라 회사가 여러 신문에 환영광고를 냈었다. "共存共榮의 경영철학으로 일찌기 1973년 이 땅에 컬러·텔리비전 기술을 심었고, 또한 세계적인 오디오 기술도 심어주신..."

그는 국민학교 4년중퇴의 사환출신으로 세계적인 나쇼날 상표를 만들어낸 일본 財界의 원로다. 立志傳 그대로인 그의 인생역정이나, 소탈하게 펴 보이는 그의 인생철학은 경청할만하다.

그렇다고, 앞서의 광고처럼 過恭할 적까지는 없지만, 나는 그의 글 읽기를 즐긴다. 경영이나, 기술관계의 측면은 모르는 채로, 그의 글에 담긴 뜻이 큰 소리를 들으며 감탄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일본은 가뜩이나 땅이 좁다. 국토의 70%가 산이요, 나머지 30%에 1억이넘는 인구가몰려 살고있으니, 앞으로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 대책은 국토를 넓히는 것 뿐이다. 이른바 「國土倍增論」이다.

그를 위해서, 山地의 20%쯤을 깎아서 可住지역을 넓힌다. 거기서 나온 흙으로 바다를 메워 섬을 만든다. 그러면 可住지역 기준으로 일본 국토는 2배가 된다.

공사기간은 한 2백년 잡는다. 돈은 4천3백조엔 정도 들 것이다.

2백년을 10단계쯤으로 나누어, 20년 걸려 계획을 짜되, 경기가 나빠 일손이 남아돌면 공사를 하고, 경기가 좋아 일손이 모자라면 공사를 중단한다. 공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땅을 준다. 1백여년 지나 손자가 그 「遺産」을 차지한다.

얼핏 허황하게 들리는 얘기다. 그러나 2백년 걸려 한 국민이 일을 꾸민다면, 그만한 役事를 못할 것이 없다. 이런 통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기에, 일본 사람을 마냥섬 사람이라 부르기가 겁난다.

남의 亞流같아 안됐지만, 마쓰시다構想은 「飜譯」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좁은 국토, 70%의 山地는 일본과 같고, 인구 밀도는 일본보다 높다. 대신 西海라는 얕은 바다를 끼고 있으니 바닷속에서 땅을 건지기는 더욱 쉽다.

國土만들기의 사업지역을 仁川앞바다로 친다면, '游積島'쯤을 써로 해서, 그앞바다에 커다란 섬을 쌓는다. 섬 한귀를 황해도 땅에 잇닿게 하여 仁川앞은 內海로 만든다. 2백년 걸려 안되면 3백년 걸려한다. 명색이 「大陸사람」인 우리가 이만한 꿈을 못꿀 것은 무엇인가.

이런데 비하면, 그제 기공한 漢江개발 계획은 「大役事」란 이름이 좀아쉽다. 겨우 遊船을 띄우고, 체육공원을 만든다는 구상은 정원가꾸기나 같다. 3년안에 일을 끝낸다는 계획도 너무 성급하다.

한때 忠州까지 배를 댄다던 南漢江運河계획은 이보다 웅장했지만, 공사비가 1조원에 이른다는 말에 질린듯, 운만 띄우다 사라졌다.

사실은 이계획도 발상자체가 너무 작은것이었다. 南漢江·北漢江의 8개 지천과 20개지방하천, 7백개 준용하천, 총연장 7천4백30㎞를 포괄하는 運河계획·改修계획쯤이 나왔어야 우리답다. 11개시 26개군 30개읍, 南韓국토의 26%, 인구의 31%를 포용하는 계획이다. 3백년이 아니라, 한30년쯤 품을 들이면 될 일이다. 여력이 있으면 運河를 洛東江에 잇고 元山灣까지 뻗게할 것이다.

서울의 漢江36㎞를 손보는 일은 이런 큰 構想의 초입쯤으로 생각해야 제격이다. 그런 構想에 연계되지 않는다면, 이번 役事의 뜻이 더욱 빛날수도 없다.

더구나 공사를 틈타서, 汝矣島 샛강을 메우고, 30여만평 아파트 부지나 얻으려 한다면, 너무나 좁스럽다. 그렇게 통좁은 생각밖에 못했기때문에 우리는 汝矣島에서 맨해턴(뉴욕都心)을 이루는섬)을 잃었고, 江南에서 캔버라 (濠洲의 행정수도)를 놓쳤다.

이번 漢江改修는 진짜 漢江大役事를 構想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한10년 계획하고, 環境을 평가하고, 한 20년걸려 시공하는, 그야말로 代를 이어가는 내셔널·프로젝트가 나와야한다.

우리의 머리 통이 일본사람만 못하다고 해서는 말이 안된다.

고리型날개 「21世紀항공기」

록히드社고안, 生産여부 곧결정

항공기모형도 시대가 바뀜에 따라 더욱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다. 미국 록히드·조지아社는 「21세기의항공기」라고 명명된 고리형날개를 가진 새로운항공기 모델을고안했다 (사진).

처음 설계에는 동체가 고리날개의 중심부에 위치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이착륙이 불편함을 고려, 동체가 고리바닥에 놓이도록 설계가 변경됐다. 고리 맨꼭대기에는 방향조정용 키가 달려있다.

이디자인은 우선외관이 미려할뿐아니라 종래의 항공기보다 기체자체무게가 덜나가기 때문에 연료효율성이 높다는것.

록히드·조지아社는 이미모형비행기를 제작, 여러가지 시험을 완료했는데 결과를 분석, 본격생산여부를 결정짓게된다. 【뉴스위크】

海外토픽

蘇潛艦 그물에걸려

★워싱턴海岸29㎞밖公海

소련잠수함1척이 지난주 워싱턴해안에서 약 29㎞떨어진 공해상에서 한어선이던진 그물에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美국방성이 27일 밝혔다.

美국방성의 한 대변인은 『관련어부들은 그들이 던진 그물에 걸려진것이 잠수함으로 믿고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그같은 일이 발생한 곳이 공해상이기 때문에 문제의잠수함이 소련잠수함일 가능성이 가장크나 다른나라 잠수함일수도 있을것으로 믿고있다』고 덧붙였다.

이대변인은 또 美국방성은 이번사건에 대한 자료수집을 계속하는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美국방성은 그러나 이번사건의 정확한 날짜및장소 그리고 관련어선에 대해서도밝히지않았다. 【워싱턴=日】

軍人에 귀걸이許容

★和蘭서 머리그물 使用이어

지난 60년대 세계최초로 병사들에게 머리그물 사용을 허용했던 네델란드 국방성은 조만간 귀걸이 착용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국방성대변인이 발표.

얀·반·후벨린겐국방차관은 최근 육·해·공군참모총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남녀병사들의 귀걸이 착용을 허용하도록 지시했다는것. 【헤이그=日】

◇難民村지키는 伊병사들 팔레스타인난민 대학살극이 자행됐던 샤틸라난민수용소로 들어가는 남쪽 진입로에서 한여인이 시체발굴작업 때문에 온천지에 먼지가 일어나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채 이곳에 진주한 이탈리아軍 병사들 옆을 재빨리 지나가고 있다. 【베이루트28日UPI電送=聯合】

"「虐殺사건」美엔 책임없다"

레이건會見 美軍은 PLO撤收 감시만

【워싱턴AP=聯合】 레이건 美대통령은 28일 美國은 西베이루트의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발생한 학살사건에대한 책임을 질수 없다고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밤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베이루트에 파견했던 해병대를 PLO(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베이루트철수 감시임무만을 수행케한채 레바논으로부터 철수시켰다고 해서 난민촌 학살사건에 대한 책임을 나눠가질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우리의 군대를 철수시킨 결정으로 인해 책임이 우리측에 부과될수 있을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레이건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만일 레바논에서 새로운 전투가일어나 美軍의 존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하겠느냐는 질문에 자기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것으로는 생각지않는다면서 가설적인 질문에는 대답치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서 레바논에 파견했던 美해병대의 주된 임무가 PLO의 베이루트철수를 프랑스및 이탈리아軍과함께 감시하는 일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이일은 성취되었으며 아무도 레바논대통령당선자의 암살사건과 난민촌학살사건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美해병대가 29일아침 베이루트에 상륙하여 이스라엘軍 시리아軍등 모든 외국군대가 레바논을 떠날때까지 그곳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건대통령은 또 외국군대의 레바논 철수가능성에나 관적인 견해를 표명하면서 『나는 일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말했다.

「이」政府 학살查問委구성

베긴·샤론召還 증언토록

【예루살렘AP=聯合】 이스라엘정부는 28일 국내외의 점증하는 압력에 굴복, 베이루트의 팔레스타인 난민대량학살사건의 진상을 조사할 查問委員會를 설치키로 결정했다고 단·메리도르관방상이 발표했다.

메리도르관방상은 이날특별각의가 끝난후 베긴수상이 29일 이츠하크·카한 대법원장에게 查問委설치 결정사실을 통보하고 查問委의 구성을 위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리도르관방상은 3人으로 구성될 查問委는 베긴수상, 샤론국방상등 모든 각료뿐만 아니라 군지도자들까지 소환, 충실한 증언을하도록 명령할수 있다고말하고 법규정에따라 查問委에서 거짓증언하는자는 최고 7년의징역형을 받게된다고 강조했다.

查問委가 진상을 밝히게될 주요문제는▲베이루트주둔이스라엘군에게 레바논의 기독교 팔랑헤당민병대의 난민수용소진입을 허용한자는 누구인가?▲군부와 행정부는 과거 팔레스타인들에대한 잔학행위로 이름을 떨친 팔랑헤당민병대원들이 제마엘의 폭사사건을 계기로 보복할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있었던가?▲이스라엘군이 개입하기전 30여시간동안 레바논우익기독교민병대들이 팔레스타인난민을 어떻게 수백명이나 학살할수있었는지등이다.

地中海 美軍 증강

최근 레바논事態 계기로

【워싱턴AP=聯合】 미국은 최근 레바논사태를 계기로 지중해주둔 美군사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美국방성과 가까운 소식통이 28일 밝혔다.

이소식통은 美국방성이 이와같은 결정에 따라, 지중해주둔 美제6함대의 전력증강을 위해 항모 아메리카號와 호위함 5척에 대해 영국의 포츠머드軍港을 떠나 현지로 발진하도록 명령했다고 말했다.

이軍철수 완료

【베이루트·워싱턴外AP=聯合】 2주간 西베이루트에 진입한 이스라엘군은 28일 갈레리에·세마아회랑지대의 교차로와 베이루트항에서 철수했으며 베이루트 국제공항에서도 29일 철수하기로 동의했다.

이에따라 1천2백명의 美해병대는 이날부터 베이루트상륙을개시할것으로보인다.

레바논국영방송은 모리스·드레이퍼美中東特使가 아스민·제마엘 레바논 대통령에게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공항철수에 관한 합의가이루어졌음을통고했다고보도했다.

中共總정치부主任 余秋里 임명

【北京AP=聯合】 중공·당정치국원 余秋里(68)가 최근 인민해방군(PLA)총정치부주임에 새로 임명된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관영 新華社통신은 이날北京에서 열린 군사퍼레이드를 보도하면서 간접적으로 余가 중공군총정치부주임에 임명됐음을 밝혔으나 전임자인韋國清(75)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밝히지않았다.

경제전문가로서 지난58년이래 군사요직을 맡지않았던 余는 이번 임명을계기로 中共軍의 연로한 관료층을쇄신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美국민 對이스라엘觀 변화

WP ABC 레바논事態이후 여론조사

否定的태도 급증…45%가 신뢰못해

"大量학살사건 非難받아 마땅" 67%

【워싱턴29日=李文熙특파원】 이스라엘의 레바논침공, 이에 따른 대량학살사건등이 미국인의 對이스라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방송이 공동으로 실시,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인의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급격히증가, 45%가 이스라엘은 신뢰할수있는 우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있으며 우방이라고 대답한것은 40%에 불과했다.

이것은 1년전인 81년10월 같은 질문의 여론조사에서 각각 24%, 64%를보였던것에 비하면 커다란변화이며 이같은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에대한 부정적 대답이 더 많이 나왔다고워싱턴 포스트紙은말했다.

대량학살 사건의 책임에 관해 이스라엘이 상당한비난을 받아야한다가 28%, 약간의 비난을 받아야 한다가 39%, 비난할 이유없다가 20%로 나타났는가하면 이스라엘에의 무기판매 즉각 중단에 59%가찬성, 35%가 불찬성을나타냈다.

흥미있는 반응은 미국내 유태인들의 반응으로 미국의 이익에서 어긋난다하더라도 이스라엘을 지원하겠다가 41%, 그렇게 안하겠다가 53%였다.

전체적으로 비율은 떨어졌지만 이 조사는 아직도 아랍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면 그래도 이스라엘쪽이다가 48%, 아랍국가가 더공명하다가 27%였으며 이질문의 1년전결과는 55%, 18%였다.

한편 레이건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에관해 처음으로 50%가 불찬성으로 나왔으며 (지지는 46%) 그 불찬성의 근거는 대부분 그의 외교정책에 기인한다고 워싱턴포스트지는 분석하고 있다.

레이건의 외교정책에 대해 찬성 43%, 불찬성 45%, 35%에서 레이건은 중동등 외교정책의 수행에서 국민의 지지를 점차 잃고 있다는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1천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며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로 돼 있다.

새 예루살렘 교회

창립 1주년기념 성회

강사 : 데이비드·메인스목사(David Mainse)

통역 : 김승환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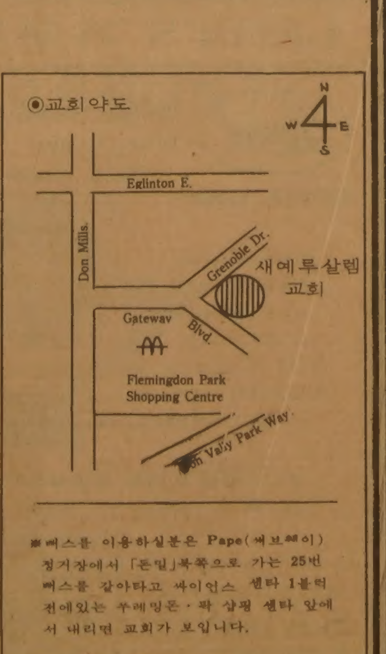
강사소개 : 데이비드 메인스목사님은 캐나다전역과 미국등지에 방영되고 있는 "100 HUNTELY STREET" TV프로그램(GLOBAL TV : 매일 오전9시30분~10시30분)의 창설자이자 사회자입니다. 그외에 "CROSSROADS"와 어린이 프로그램 "CIRCLE SQUARE"등을 통해서도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종입니다.

주님께서 테레비선교 할 것을 미리 환상으로 보여 주심으로 TV방영하는 시작의 동기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목사님은 특히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우리 한인 교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읍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초청합니다. 특히 중·고등·대학생들은 많이 참석키 바라며 꼭 오셔서 모두 구원의 체험과 성령세례 받는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회시간이 토요일(10월9일)하루만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1982년10월9일(토)오후7시30분

장소 : 새 예루살렘교회(5 GRENOBLE DR. DON MILLS)

☎ : 429~2685 · 429~1430



※뻐스를 이용하실분은 Pape(써브웨이) 정거장에서 「돈밀」북쪽으로 가는 25번 뻐스를 갈아타고 싸이언스 센타 1블럭 전에있는 푸레밍돈·팍 샵핑 센타 앞에서 내리면 교회가 보입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 담임목회자 김승환및 교우일동

情報 자리굳혀가는 「美國속의 한국인」

한국일보 (특집판)

80만同胞의 現住所

移民80년…하와이에서 알래스카 까지

1903년1월13일 1백1명의 한국이민을 실은 여객선이 하와이부두에 도착, 한국민의 첫 美洲이민이 시작된다.

朝鮮王朝의 무능과 주변열강의 세력다툼은 남방日本에겐 심장부를겨눈 비수요 北方中國엔 머리를 때릴수있는 망치격인 地政學的요충 韓半島를 힘의眞空지대로 방치하려하지 않았다.

風前燈火의 조국현실을 가슴아파하면서 미지의땅 하와이로 1905년까지 65척의 대소여객선에 실려나간 선각 이민자는 정확하게 7천2백26명. 이중 6천48명은20~30세사이의 미혼청년들이 대부분이었고 6백37명은여자, 5백41명은 어린이들이 었다。(Kim Bernice Bong Hee"The Koreans in Hawaii"University of Hawaii. 1937)

농민들이 대종이었던 중국이나 일본과는달리 한국의 초기이민들은 다양한출신배경을 갖고있었다. 3분의1이 정부의관리, 군인, 기독교인, 승려, 유학생들이었다. 40%가 기독교신자들이었던 이들 초기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이민들은 한달25일 노동에 16달러의임금을받는 半農奴상태였다.

약2천명이 로스앤젤레스등으로 더나은 임금을찾아 본토로옮겨갔고 1천명은 한국으로되돌아와, 1910년 센서스에의하면 하와이에 남은사람은 겨우4천명을 조금 웃돌았다.

24년 동양계이민봉쇄법(The Enactment of the Oriental Exclusion Act) 제정으로 한국인에겐 이민의 문호가 사실상 폐쇄되었다가 50년 6·25사변으로 美洲로의「제2의 엑소더스」가 시작된다.

美 이민국통계자료에 따르면 1950년부터 64년까지 1만4천명의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주를했는데 주로 美軍과 국제결혼한 여성들과 전쟁고아들의 입양이주가 대부분이었다.

西歐국가들에 유리하게 시행되었던 소위「국가별 이민 쿼터제」가 폐지되고 가족초청과 전문인력의 유입을 목적으로 65년개정된 美이민법은 한국인 러시를 이루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이민국 공식통계에 따르면 65~80년사이 30만명에 달하는 한국인이 미국 방에 정착한것으로 나타나고있다. 70년센서스엔 고작 6만9천1백30명이던 것이 80년센서스땐 35만4천5백29명으로 집계, 10년사이 4백13%의 경이적인 증가를 보여준다.

물론 美이민국의 센서스는 귀화한국인 (소위 市民權者) 등을 수치에 포함시키지않은 모순점이있어 82년 현재 한국인은 통칭 60만에서 80만명정도로 추산하나 일부에선 1백만명은 되리란는 주장도 있다.

아무튼 80만명이든 1백만명이든 미국속의 한국인들은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한 서부지역에 30만명이, 세계의상권을 쥐고있는 뉴욕에 15만명, 시카고를 중심으로한 중부지역에 10여만명등 美전체 50개주에 골고루 퍼져 집단촌 코리아타운을 형성하면서 착실한 기반을 다져가고있다.

북쪽으로는소련의베링해협과 단55마일거리를둔 석유, 金, 銀등 무진장한 자연자원의 寶庫 알래스카州에서 곰사냥으로 비싼 漢藥材용담을 만드는일에서부터 大西洋과 멕시코灣을 가르는 최남단 플로리다州 대형유람선상의 서비스맨에 이르기까지 부지런한 국인은 지금이시간에도 안정된 생활을위해 달러를벌어들이기에 여념이없다.

흔히들 미국속의 한국인은 아리안族의 우수한 머리에다 유태인의 악착같은 근면성이 혼합된 민족이라고들 칭찬받는다.

때론 「제2의 유태인」이라고 다른소수민족사회로부터 질시섞인 얘기도듣는다.

식품·야채商서 차츰 大型化
워싱턴에만 千餘개 事業體
끈기 근면…"제2유태인"別名도

뉴욕의 카치시장은 슬럼등 죽어버린商街를 부활시킨는「마술사같은 존재」라고 한인들의 비즈니스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기자가 여행중에 들렀던 워싱턴DC의경우 교포들의 主宗생업은 햄버거숍, 미국인상대의 식품점등소위自營스몰·비즈니스 였다。

이중 햄버거숍 (여기선 Carry out이라고부른다)은 전체의 40%이상을, 그로서리·마켓 (청과상) 은 약80%이상을 교포들이 장악하고있다고 한인회장康哲般씨 (38)는 말했다。

康씨는 워싱턴DC내에만 교포비즈니스가 1천개를 웃돌것이라고 추산했다。

햄버거숍、그로서리마킷、가스스테이션등 소위 스몰·비즈니스는 美洲전체 교포들 비즈니스의 대종이다。

美國의 붐 타운 휴스턴에도 韓國人 붐

달러가 보인다 서둘러 移住

오일産業의 本山…거대한 新興都市로 탈바꿈

1週에 7~8世帶 옮겨와

『이곳을 찾는 여러분—휴스턴의 구석구석 어느곳에서나 여러분들은 스캐폴드(Scaffold·비계·건축발침대)를 볼수있을것이며 우렁찬 건설의 해머소리를 들을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도 더늦기전에 이건설의 대열에 참여하지않겠읍니까. 여러분이 지금찾고있는 휴스턴은 서기2천년엔 세계최대의 도시가될 것입니다』 美남부 텍사스주 휴스턴의 초입길목을 지키고있는 입간판에 쓰여진 글씨의 내용이다. 1849년 서부캘리포니아로 금광을 찾아 몰려들었던 소위 「포티·나이너」(Forty niner) 들처럼 텍사스의 휴스턴은 全美제1의 붐 타운이되고있다. 이붐타운에 코메리칸들도 몰려들고있다. 현재 동포수 2만명. 해가 지평선에서 떠서 지평선으로 지는 광활한 땅 (26만7천평방마일). 흔히 텍사스州는 南韓의 8배, 南北韓합친면적의 4배나 된다. 이 넓고 넓은땅 곳곳에는 공동묘지에서도, 조그마한 언덕배기에서도 기름이 콸콸솟아져 나오는 石油가 붐 타운의 원동력이되고있다. 따라서 80만명이 넘는한국·미국인도휴스턴으로몰린다.

이곳으로 이주해왔다는 金達龍씨(46·봉제업)의얘기는 또다른일면을말해준다. 80년초가을 얼마되지 않은돈을가지고 이곳으로 이주한 金씨는 비즈니스시작에앞서 이곳 장사경험도쌓을겸 24시간문을여는 스토…

옛날 텍사스州등 남부지방은 영화에서처럼 카우보이 복장에 말을타고 소나양을 몰던, 좋게얘기해서 전원풍의 도시요, 나쁘게 얘기하면 시골뜨기 취급을 받던곳이다.

1912년 대유전이 개발되면서부터 텍사스州는 석유관련 중화학제품 생산도시로 새로운변신을했다.

즉 미국내 석유산업관련제품 생산고의 40%이상이 휴스턴을 중심으로한 텍사스州에서 만들어지고있다.

美國오일산업 메이저들, 엑산, 걸프, 텍사코, 모빌등의 정유공장이 밀집되었고 관련제품, 이를테면 각종 플래스틱, 인조대리석, 콜타르등 건축자재제조공장이 광활한면적위에 자리하고있다.

세계최대화학제조공장인 듀퐁社의 메인공장이 이곳에있어 석유관련제품을 쏟아내고있다.

1년중 8~9개월은 에어컨을 켜고 지내야하는高溫多濕한, 한여름 서울날씨같은 휴스턴은 지방세를걷지않는 텍사스특유의 州法때문에 여기저기서 本社사무실들이 몰려들고 있다.

주로 뉴욕에 본사를두고 생산시설만 휴스턴에 누고있는 대기업들이 지방세면세혜택을 노려 몰려들고있다.

또한 최대의 항공사 팬암도「뉴욕으로부터 탈출」을 결정, 휴스턴에 거대한 본사사옥을 건립중에있다.

또하나 특이한것은 휴스턴을 중심으로한 각종 중공업의 발전은 여타관련업계에 誘發효과로 中東건설의 모든 프로젝트가 여기서 만들어지며 세계굴지의 대형건설회사가 [illegible]받은 물량을 세계각처로 재하청하고있다.

말하자면 中東오일달러의 배분창구라고나 할까.

기름을 실어나를대형탱크를 건조하는 조선소가 밀집해있다.

日照시간이 긴 소위「선벨트」지역이라 다른지역보다 하루작업시간이 많은것도 큰 잇점이다.

휴스턴 다운타운서 東南쪽 약25마일지역에는 NASA (美국립항공우주국)가 자리잡고있다.

플로리다州의 케이프케네디는 단순한 발사기지일뿐 이륙명령버튼은 휴스턴 NASA본부에서 누른다。

스팟마킷 (現物市場) 에서 오일가격이 떨어지고 현물시장의 존재조차 위협했던 물량의 석유공급과잉은 이곳 붐타운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그곳 현지 신문·방송은 휴스턴지역의 실업률이 4%를 훨씬 넘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었으나 10%를 육박하고 있는 美전체실업률에 비하면 아직도 고용…

◇죽은거리·상가를 되살리는 마술사. 한국인들은 미국곳곳에 코리아타운을 형성, 집단거주를 하고있다。사진은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블루바드거리에 밀집된 코리아타운 상가。
【로스앤젤레스지사=柳根哲기자찍음】

開發무드타고 서비스業 활기
교포銀行 구상 州政府와 절충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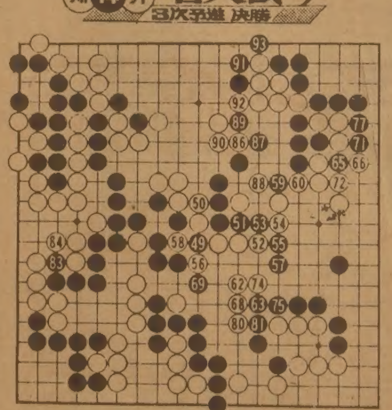
【휴스턴=盧縉煥기자】

盧縉煥기자 2年餘의 深層취재

올해는 韓·美修交 1백주년. 미국에사는 코리안-아메리칸, 在美 한국동포의 수는 80~1백만명에 육박하고있다。한국일보 政治部 盧縉煥기자<사진>는 2년여간 南加州 대학원에서 政治學科석사과정을받으며 미국 곳곳으로 뻗쳐가 살고있는 동포들의 생활, 꿈, 고민, 불안을 취재했다。물론 코메리칸의 희·노·애·락은 고국인 한국과 연결된것도 있지만 多民族 複合국가며 거대한산업국가인 미국과의 만남과 그에 연유한것들이다。盧기자는 앞으로 수회에 걸쳐 「美國속 한국인」에 대해 [illegible]를 느끼고, 발로 뛰며 찾아낸 여러가지를 써볼 예정이다。「달러가 있는곳에 몰리는 한국인」「자식에게 민주교육을 주기위해 노력하는 한국인」「기독교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한국인」등 盧기자가 본 코메리칸의 오늘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의 기사에서 먼곳에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한국인의 根性」을 읽을수 있을것이다。【편집자주】

第14期 名人戰 3次予選 決勝

第3局第8譜 149~193 (各4시간·덤5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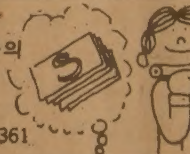
黑勝은 결정되다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 <229>

朴婉緖 作 · 金光培 畵

미리 온 아이㉜

광고문의 533·2361



LEON'S 가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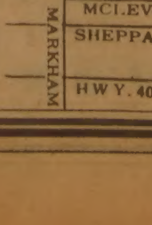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셰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밴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전화 : 〈B〉 (416)497 8900 채 준 서
〈R〉 (416)633 7092 (David Chae)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 · 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맛사지

(near airport)
MISSISSAUGA

斷絶22년…움트는 中蘇解氷

10월초「관계正常化」예비회담서 구체화 움직임

중공과 소련이 20여년간의 단절상태를 청산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활발해져 가고있다.

양국은 오는10월초 北京에서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中蘇관계정상화를 위한 예비회담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타진 할 것으로 보인다.

中蘇의 이같은 움직임은 회담의 성과에 따라 작게는 양국간의 국경분쟁해결에서부터 크게는 공산진영 2대강대국의 단결이라는 새로운 사태의 출현 등 국제정치에 미칠 진폭은 예상을 불허케한다.

◇斷切20년만의 解氷은 가능할까。오는 10월초의 中·蘇관계정상화 예비회담은 이 가능성을 타진하기위한 자리가 된다。中·蘇양국수뇌의 표정에서 그 어려움을 읽을수 있다。

12全代서「관계회복」확인
「브」、"餘生의 최대과제"闡明

지난 60년 소련이 돌연 중공에 대한 모든 원조제공을 중단함으로써 시작된 양국간의 불화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근래에 들어 기술교류관계를 유지하고있으며 해마다 무역협정을 경신해 오고있다.

소련공산당서기장겸 최고회의간부회의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는 26일에 행한 한연설에서 對중공관계정상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힘으로써 소련이현재 이문제를 최대의 정책과제로 추진하고있음을 보여주었다.

브레즈네프는 지난3월 소련령 카자흐공화국을 방문했을때도 중공과의 관계개선 용의를 천명했었다.

그런가하면 중공의 부수상 萬里도 지난 15일 소련과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공이 『진지한자세로 임하고있으며 소련과의접촉을 바라고있다』고 정부입장을 대변했다.

중공은 또 中蘇문제해결에 필요한 전제조건의 타결방안을 모색하기위해 중공외무성의 소련·東歐局長 于洪亮을 지난8월 모스크바에 파견, 소련관리들과 회담을 가졌다.

中蘇관계정상화를 위한 회담은 당초 중공측의 제의로 6차례에 걸쳐 열렸다가 지난 80년1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침공에 대한 중공측의 항의표시로 중단되어 이제까지 교착상태를 못면하다가 이번에 그 예비회담이 열릴 예정으로 있는것이다.

이번회담에는 소련측에서는 레오니드·일리예치예프부외상이 참석할 것으로 외교소식통은 예상하고 있으나 중공측에서도 동급의 관리가 참석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만 나오고있을뿐 이제껏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고있다.

중공이 소련과의 관계회복이라는 외교노선의 궤도수정을 공식확인한것은 이달초의 제12기 전국대표회의의 결과였다.

중공은 외교의 궤도수정이 필요한 요인으로 ▲鄧小平·胡耀邦·趙紫陽을 주축으로 한 중공의 현대화노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소련과의 안정관계가 필요하며 ▲미국및 일본과의 관계정상화이후 당초 기대했던 만큼 서방과의 경제협력의 진전되지못해 中蘇무역등 경제교류확대가 필요하게됐고 ▲소련의 對베트남지원이 감소됨으로써 對蘇관계개선의 장애가 줄어들었다는 점등을 지적하고있다.

따라서 중공은 12全大會를통해 美蘇등거리외교정책을 강조했으며 그뒤 중공언론들도 對蘇유화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경향은 중공언론들이 이제까지 소련위협론을 강조해왔으나 근래는 간략하고도 객관적으로 보도하고있는 점에서도 발견할수있다.

중공의 소련접근은 미국의 對대만정책등이 부채질한 결과로도 분석되고있다. 지금까지 中蘇간에는 지난8월말의 국경교섭개시, 9월의 양국출판물취급조약조인, 유학생파견및中蘇민간여행재개등 인적교류 강화등의 구체적인 관계개선이 있었다.

이번 회담에서 7천㎞에 달하는 국경분쟁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는데 국경회담도 지난78년4월결렬된후 이제껏 재개되지않고있다.

지난 69년 양국국경수비대의 충돌로 아무르강과 우수리강변에서는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현재 소련군은 40만、중공군은 1백50만명이 국경을 따라 배치되어있다.

병력수에 있어서는 중공측이 압도적이지만 화력、기동력면에서는 소련이 훨씬 우월한 상태로 양국은 국경긴장에서오는 낭비를 가능한 한 줄여보고자하는 공통점을 갖고있다.

중공과 소련의 관계가 사실상의 단절상태로 접어든 것은 브레즈네프가 최고 권좌에 오르기 전의 일이었지만 브레즈네프는 양국관계를 정상화시키려는 개인적인 야심을 갖고있는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있다.

무엇보다도 브레즈네프가 권좌에있는 동안인 지난 70년대를 통해 미국과 중공이 관계를 정상화한 것은 그에게 몹시 배아픈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브레즈네프는 미국과 중공의 관계가 악화된 것을 틈타 中蘇의 관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건강상태가 좋지못해 얼마 안남은 존립기간에 자신이 이룰 수 있는 또하나의 업적으로 삼으려는 듯하다.

中蘇관계정상화조짐은 주변에 상당한 여파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약삭빠른 일본정부는 벌써 이같은 상황변화에 대한 일본의 대처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정확히말해 22년이 지난 中蘇간의 단절상태는 당초 양국간의 이념분쟁에서 비롯됐다.

지난 60년 중공과 소련은 형제공산국가를 표방하면서도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로 대표되는 이념분쟁으로 출발, 그동안 불화관계로 일관해왔던 것인데 오는 10월의 예비회담성과에 따라서는 「오랜단절」이 다시해빙될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있다. 【朴來富기자】

한국의 얼 지키는 延邊동포

우리말을 公用語로 사용
中共서 가장敎育熱 높아

白頭山 天池의 3분의2가 한국영토이며 나머지3분의1이 중공영토로 되어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와 주목을 끌고있다.

『중공에 일본어敎材를 보내는會』의 대표로서 작년 10월 중공동북부 延邊韓人自治州를 방문한바있는 요꼬오·마사노부(橫尾正信)씨는 최근 東京시내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문화혁명때 毛澤東의 조카인 毛遠新이 당시 延邊自治州長이던 朱德海를 『북한과 국경교섭을 벌이면서 天池의 3분의2를 양보한 매국노』라고 공격했었다고 밝혔다.

또한 요꼬오씨는 지난20일 가진 보고회에서 인구 2백50만명가운데 1백50만명이 한국인인 延邊자치주를 소개하면서 이자치주는 중공전국에서도 교육및 문화수준이 가장 높을뿐아니라 남북한대결이라는 이데올로기의식도 희박하여 통일이 이루어질경우 남북한 융화작업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3일의 延邊자치주 창립30주년을 맞이했을때는 중공각지에서 많은 교포들이 모여들어 이곳에서 대대적인 축하행사를 벌인 것으로 들었다고 요꼬오씨는 전했다.

요꼬오씨는 延邊지구의 모든 간판에 한글과 한자가 섞여쓰이고있으며 한국어가 공용어처럼 되어있어 이런 의미에서 延邊은 중공각지의 한국인들에게 聖地같은 고장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요꼬 오씨의강연을통해 延邊자치주의 한국인 생활상의 간추려본다.

지난해 10월중순 吉林省 東端의 北韓및 蘇聯국경선과 접한 韓人자치주를 방문했다.

해방전 間島로 불린 넓이 4만평방미터의 이지역 인구는 2백50만명이고 이가운데 1백50만명이 한국인이다.

吉林市에서 기차로 延吉市까지 가는도중 차량에비친 농촌풍경은 아무리보아도 한국이지 중국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었다.

다만 인구30만의 延吉市는 대부분의 시민이 한국말을 쓰고 간판이 한글로 돼있는것을 제외하면 다른 중국도시와 비슷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중국의 다른 지역에흩어져 사는 한국인 2~3세들은 한국말도 못할뿐더러 점차 漢族에동화되는 경향이 심하다고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점에서延邊은중공전역에서살고있는모든한국인의聖地처럼인식되고있다.

延邊자치주에서는 아이들의 1백%가 小·中學校를 졸업하며 90%이상이고등학교에진학하는등중공전체에서교육열이제일높다.

한국인학교의 경우 순전히 한국어로 교육하기때문에 소학교3학년때부터 외국어로서중국어를배우고있으며중학교에들어가면중국어외에일본어까지배운다.

교육수준은 물론 아이들이 녹음기를 길거리에들고 다닐 정도로 전기제품보급률도 높아 20가구에 1대꼴로 흑백TV를 갖고있고 현재는 세탁기가 인기인데 80년에는 한국어TV局도 개설됐다. 【東京=聯】

海外토픽

亞洲지역 뱀에 年 만명희생

아시아지역에서는 매년 최소한 1만명이 뱀에 물려 사망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25일 밝혔다.

WHO는 최근 도오꾜(東京)에서 열린 毒學및 뱀에 물린 상처치료에 관한 세미나에 제출된 통계숫자를 인용, 이같이 밝히고 『뱀에 물린 상처로 인한 치사율은 버마가 세계에서 가장 높아 매년 뱀에 물리는 1만명중 약10%가 사망한다』고 발표했다.

WHO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매년 약20만명이 뱀에 물리고 있으며 뱀에 물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부들이지만 특히 말레이지아와 타이에서는 어부들이 바닷뱀에 물리기도 한다는것。【뉴델리=PTI】

◇위험한 妙技 비키니차림의 모델 지나·찰즈양이 롤즈·로이스승용차의 보네트위에 비스듬히누워 포즈를 취하고있는 뒤를 오토바이 묘기꾼이 뛰어넘고있다。이 묘기는 내달 런던에서 있을 자선행진을 선전하기 위한 것。【런던27日 AP聯=聯】

71년「연애교실」서 히트하고渡美한
前 여배우 나오미 歸國

〈인터뷰〉

"秋夕쇠고 박람회參加하러…"

美로스앤젤레스에 살고있는 前영화배우 나오미씨(31·본명 鄭英一)가 지난19일 일시귀국했다. 무역업을 하는 남편 崔明光(42)、그리고 생후9개월된 3남과 함께 2년만에 다시 고국을 찾은 나오미씨는 『남편의 사업도 돕고 친정에서 추석을 보낼겸 나들이를 했다』고 밝혔다.

『24일부터 10월18일까지 열릴 서울국제무역박람회에 제가 경영하는 「나오미백화점」이 해외동포선물센터 개설자격을 얻었어요』

서울국제무역박람회는 세계41개국에서 약1천여생산업체가 참가하고 이중 18개회사가 자사의 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판매하게 된다. 나오미백화점은 생산업체가 아니지만 LA한국무역관의 추천으로 해외동포로는 유일하게 직판권을 얻었다고 한다.

박람회기간중 나오미백화점은 레오날드、셀린、발렌티노、레녹스、피에르·카르댕등 세계의9개유명회사가 만들어낸 핸드백、스카프、넥타이、액세서리등 20만달러 상당의 상품을 선보일예정인데 나오미씨가 직접판매에 나선다고.

『믿을수있는 상품이고 가격도 서울에비해 20%정도싸지만 판매보다는 보여주는데 의의가 있어요』

나오미씨는 71년 영화「연애교실」로 데뷔, 30여편에 출연했으며 73년10월 미국으로 건너갔었다.

미국에서는 연예계선배인 江紋씨부부、潘世美씨부부와 1개월에 한번 정기적으로 부부동반으로 만나 담소하며 고국의 향수를 달랜다고。미국생활 10년이 됐지만 아직도 시민권을 얻지않았다며 한국인임을 강조한 나오미씨는 『돈이 조금 더 모아지면 아주 귀국해서 살 생각』이라고 밝혔다.

가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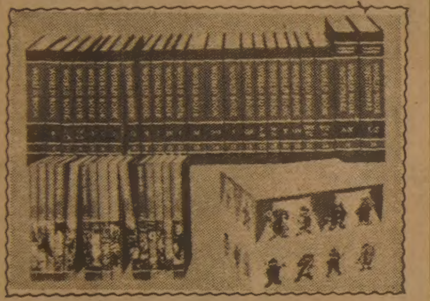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 : 김미리사 BAND— 기타 : 신상친
올겐 : 한효상
드럼 : 권순근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Special Offer
WORLD BOOK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22권 World Book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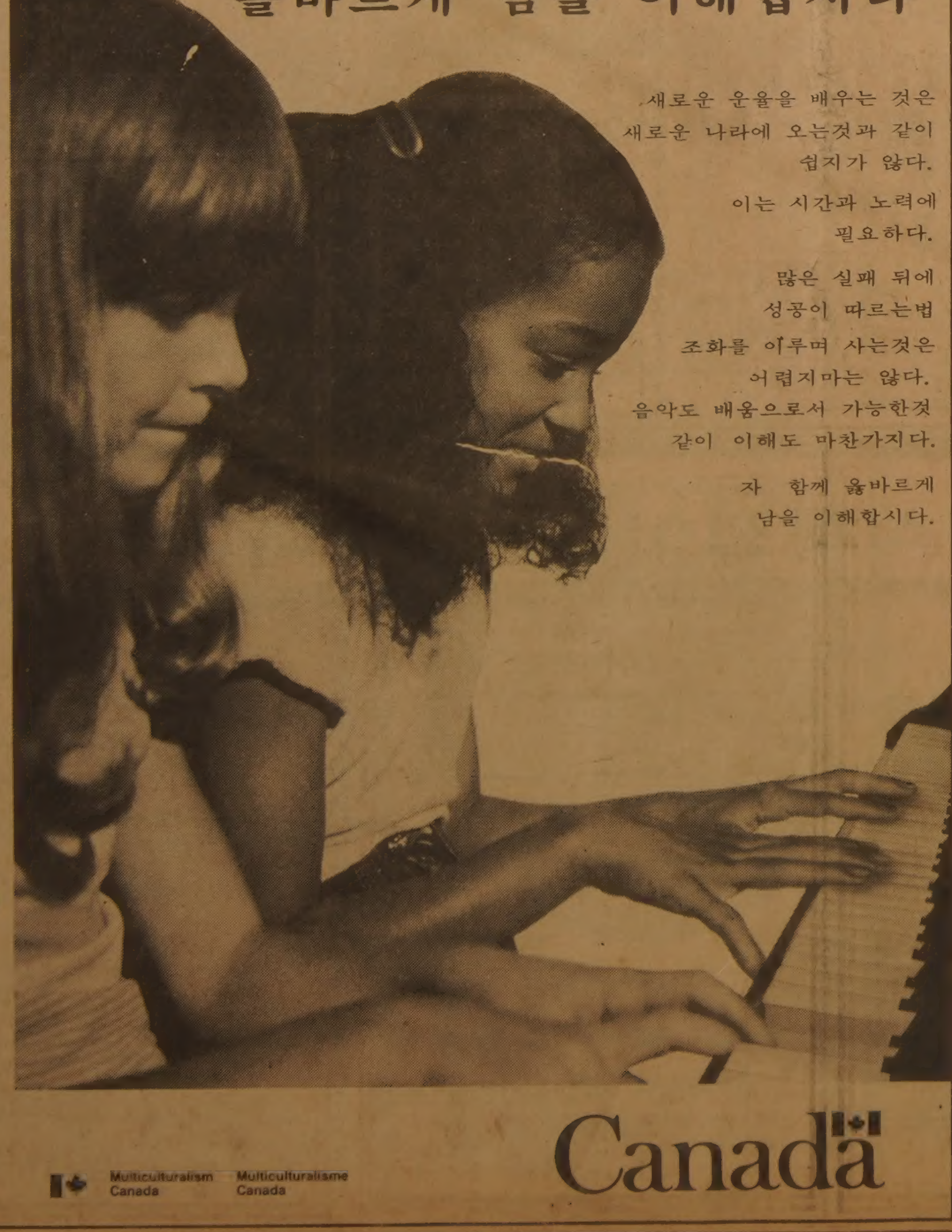
조 규 혁
종 합 보 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우리 함께
올바르게 남을 이해합시다

복
합
문
화

새로운 운율을 배우는 것은
새로운 나라에 오는것과 같이
쉽지가 않다.
이는 시간과 노력에
필요하다.
많은 실패 뒤에
성공이 따르는법
조화를 이루며 사는것은
어렵지마는 않다.
음악도 배움으로서 가능한것
같이 이해도 마찬가지다.
자 함께 올바르게
남을 이해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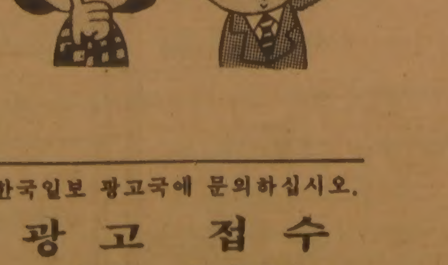


Canada
Multiculturalism Canada Multiculturalisme Canada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The Permanent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mpany
1560 Bayview Avenue Toronto,
☎ : (B)488—2444 (R)759—4560

어떤 광고가 필요하십니까?



한국일보 광고국에 문의하십시오.
광 고 접 수
533~2361
토요일에도 광고 접수합니다.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고약한 誣告사범 일제團束

3년간 진정·고소 3백94회 夫婦등

4명 拘束 4명 立件

서울지검 특수3부(宋宗義부장검사)는 각종분쟁사건을 둘러싸고 투서, 진정, 고소를 되풀이해온 악질적인상습무고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에나서 29일 3년동안 무려 3백94회나투서, 고소를 거듭해온朴圭星씨(68·무직·서울道峰區彌阿洞762의48) 田禮根씨(45·여) 부부등 8명을 적발, 田씨등 4명을구속하고 朴씨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번에 단속된 무고사범은 ▲합법적인 절차에의해 정당하게 처리된 민형사, 행정사안에 대해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등 법률상의 모든 불복절차를 마쳐 이유없음이 명백함에도 불복하고 허위내용의 진정, 고소등을 상습적으로 되풀이했거나 ▲분쟁을 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려하지않고 이해관계상대방이나 사건처리 담당자등에 대해 진정, 고소등을 되풀이하는 방법으로 심리적인 압력을 가해 집요하게 괴롭힘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보려했던사람 ▲과거 허위고소로 무고죄처벌을 받았거나 검찰에서 정상을 참작,무고죄로 입건하지않았는데도 불복하고 개전의 정이 없이 다시 악의적으로 진정, 투서, 고소등의 무고행위를 되풀이해온 사람등이다.

朴씨부부의 경우 지난78년12월부터 서울道峰區彌阿洞317의13 李기호씨소유 점포에 세들어 상호갈비집을경영하면서 월세와 전기, 수도요금을 체납, 집주인 李씨와 자주 다투던중 79년5월 집주인 李씨가「건천같은 사람」이라고 말한것을 빌미로 李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게했다.

이들부부는 그후에도 李씨편을 드는 이웃주민들을 명예훼손 교사죄로 추가고소했고 주민들로부터 무고죄로 맞고소당해 80년7월24일 부부모두 법원으로부터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기도했었다.

이뒤 이들부부는 주민2명과 공판때증인으로나온 집주인 李씨를 위증죄로고소했고 이고소사건은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기소됐다.

이렇게되자 朴씨부부는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관전원을 상대로『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처벌해달라』며 검찰, 청와대, 사회정화위원회, 서울시경등에 고소와 진정을 했다.

이들부부는 자신들의 고소와진정이검찰에의해받아들여지지않자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냈고 이도 여의치 않자 이번에는 재정신청을 심리한 3명의판사와 불기소 처분한 검사및 항고및 재항고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을 상대로『사건을 조작했으니 처벌해달라』며 고소했다는것.

이런수법으로 부부는 79년5월부터 지금까지 3년간에 걸쳐 3백94회의 진정및 고소를 했다는 것이다.

이들부부가 허위로 진정을 하거나 고소를 제기한 사건수사에 동원된 연인원은 5백여명에 이르며 기록만도 2천1백47페이지에 이른다.

또 구속된 李國炯씨(56·광업·서울冠岳區奉天3洞1의890)의 경우 李씨가지난72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설정을 해준 자신소유의 浦項市德山洞 대지3백22평이 黃모씨 앞으로 1천4백30만원에 경락되자『黃씨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채 담당판사, 집달리, 법원서기등과 짜고 부정한 방법으로 경락을받았다』고 주장, 고소를 제기한것을 비롯, 이후 10여년간 판사, 법원직원, 은행임직원, 검사들을 상대로 15회의 고소및 진정을 되풀이해왔다.

무고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다음과같다.

◇구속▲田禮根▲李國炯▲元昌福(51·무직·강원東草市大浦동237의8)▲李觀鎔(30·무직·仁川市南區朱安1洞271의13)

◇불구속▲朴圭星▲洪松竹(80·무직·서울鍾路區上道1洞122의4)▲馬基一(60·무직·서울鍾路區中學洞25의1)▲朴八萬(43·보석상·서울江東區千戶2洞292)

北傀피납 馬山號 귀환

78일만에 船員35명 모두태우고 東草港에

【東草】지난7월13일 동해 울릉도 동북방1백70마일 大和堆어장에서 오징어잡이를 하다가 북괴무장경비정에 납북됐던 제5마산호(1백14톤·선장 洪俊源·36)가 피납78일만인 29일상오11시20분께 어부35명전원과 함께 東草항으로 귀환했다.

마산호는 26일하오 6시40분 북한의 元山항을출발, 29일새벽 6시께 동해군사분계선에서 우리해군함정에인계, 보호를받아 귀환했는데 이날 東草항에는 피납선원들의 가족등 2천여명의주민들이 귀환어부를 환영했다.

◇귀환선원명단

▲선장 洪俊源(36) ▲기관장 姜友助(42) ▲선원 朴永男(40) ▲徐萬永(36) ▲金宗亀(42) ▲陳영후(27) ▲金松河(26) ▲馬榮河(64) ▲李龍見(56) ▲金舜達(70) ▲陳永志(32) ▲朴相龍(43) ▲朴永南(37) ▲金和象(59) ▲韓吉煥(27) ▲변태훈(67) ▲李元浩(51) ▲金載石(50) ▲千在和(26) ▲嚴錫鎬(19) ▲朴昌조(38) ▲朴鎬遠(27) ▲申茂雄(39) ▲金白龍(63) ▲梁日東(61) ▲朴今植(55) ▲沈孔洙(54) ▲鄭龍雲(68) ▲鄭鍾琓(61) ▲權淳吉(23) ▲金鍾允(25) ▲朴在豊(41) ▲朱鎭錫(58) ▲朴仁煥(41) ▲朴鍾萬(26)

◇돌아온 馬山號 남북78일만에 귀환한 마산호가 29일아침 東草항에 다가서고있다. 【東草=聯合】

滯賃업주 拘束

2백여만원안주고 달아나

노동부 서울北部지방 사무소는 29일 종업원의 임금을 주지않고 달아났던 조흥하청업자 宋大成씨(41·서울城東區玉水洞424의67)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宋씨는 지난해6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吳良根씨(36·서울冠岳區新林4洞1446)등 16명에게 임금2백42만9천5백원을 주지않고 달아났었다.

한편 추석을 이틀앞둔 29일현재 전국의 노임체불은 2백94개업체에서 근로자 5만2천여명분86억5천7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새理事長 조재철씨

敎權침해 泗川여중

【三千浦】속보=泗川여자중학교 교권침해사건을 수습하고있는 학교법인 동성학원은 29일 상오10시 이사회를 열고 정호주(56) 재단이사장과 정동석(48) 이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새이사장에 조재철씨(70·사천군노인회장)를 선임했다. 【聯合】

在日동포와짜고 金塊1억 密輸기도

日警, 한국선원등 2명구속

【釜山】화성선박(부산시中區中央洞)소속 대일항로운반선제205남해호(2백톤)선원 7명이 재일동포와 짜고 싯가1억원어치의 금괴를 일본에서 밀수하려다가 일본경찰에 적발돼 갑판원 정용만씨(44·경남南海郡昌善面堂項里)와 재일동포최영호씨(50)가 구속되고 나머지 선원들은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29일 일본경찰이 이들의 범행사실을부산시경에 통보해옴으로써 밝혀졌다.

이통보에 따르면 선원정씨등은 지난5월17일 일본下關에서 재일동포 최씨로부터 금괴94개(싯가9천5백만원) 백금괴5백g(싯가8백만원)등 모두1억여원어치의 금괴를 인계받아 남해호편으로 한국으로 밀수하려했다는것. 【聯合】

5行뉴스

◆郵便업무 1·2일만 休務

체신부는 10월초 3일연휴기간중 우편이용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우편배달업무를 1·2일만 휴무하고 일요일인 3일엔 정상실시키로 했다.

체신부는 또 연휴기간중 속달우편물과 특사배달우편물은 평상시와 같이 취급토록했다.

國産 혁대와 손지갑등에 외국商標 붙여판 둘令狀

서울시경은 29일 국산혁대와 손지갑등에 외국유명상표를붙여 시중에팔아온 孫舜助씨(43·서울城北區長位洞75의289) 李良一씨(38·서울道峰區孔陵洞680의13)등 2명을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孫씨는 지난해10월부터 자기집에 직공6명을두고 손가방 1만6천5백개(개당5천원)를 만들어 엘레강스, 샤넬, 구찌, 던힐등 외제상표를 붙여팔아 3천5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봤다는것.

李씨도 지난해1월부터 자기집에서 만든 혁대장식1만6천5백개(개당1천원)에 크리스챤디오르, 피에르카르댕등의 상표를붙여팔아 8백여만원을벌었다는것이다.

自由의마을·統一村 李문공, 秋夕선물

李振羲문공장관은 29일 비무장지대 자유의 마을인 臺城洞과 民統線최북단 통일촌에 추석선물로 각세대에 고급보온주발1개씩을 전달했다.

벼베던 女人이 流彈맞아 重傷

【裡里】28일상오 11시30분께 전북益山郡金馬面箕陽里 마전마을앞 진입로변에서 벼베기를하던 안심자여인(32·益山郡金馬面箕陽里462)이 오른쪽머리에 유탄을맞아 생명이 위독하다.

남편 소재식씨(35)에 따르면 이날 안여인과함께 논에서 벼베기를하고 있는데 갑자기 퍽소리가나면서 부인안여인이 머리에서 피를쏟으며 쓰러졌다는것.

경찰은 사고현장으로부터 2m떨어진 곳에서 길이4㎝두께1㎝정도의 철갑탄이 발견된점으로보아 안여인이 인근사격장에서 날아온 유탄에 맞은것으로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聯合】

파란눈의 美兵들 「한국식」遊擊훈련

西部전선 白馬부대 훈련장

"백마…유격"우리말喊聲가득

올초부터 6백여명 修了 "모두 진지한태도"

【西部前線=申鉉鈺기자】서부전선 白馬부대 유격훈련장。구름한점 없는 맑은 가을하늘 아래에서 파란눈의 미군장병들이「백마, 백마」「유격, 유격」하는 함성을 한국어로 지르며 훈련에 열중하고있다。

한국군에게 유격훈련을 알으켜주었던 미군들이 지금 한국군에 와서 한국식 특수유격훈련을 배우고있는것.

한·미수교1백주년을맞은 올해 미군은 우리군이 나름대로 개발한 유격훈련의 우수성을 배우기위해「한수 되돌려 주기」를 요청, 유격훈련사상 처음으로 우리군조교가 미군들에게 유격훈련을가르치게됐다。유격 훈련술의 역수출이랄까.

기초장애물 코스의 교관 趙成俊중위(24·3사17기생)가 통나무그네뛰기의 요령을 우리말반 영어반으로 짧게 설명하고 조교의 시범을 보인다음『알았읍니까?』라고 외치자 ○○명의 미군들은 일제히『알았읍니다』고 우리말로 대답했다。

『PT (체력단련체조) 1번 높이뛰기 드리타입즈…시작』조교 金燦俊병장(25)의 구령도 이들은 익숙히 알아듣고 잽싸게 움직여준다。

체조의 순서가 틀리거나동작이 잘못된 미병들은 자진해서 대열뒤로 나와 벌칙으로「엎드려 팔굽혀펴기 10번」을 하기도한다。

백마부대가 미군들의 유격훈련을 시작한것은 올해 연초。주한미군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서울근교 부대유격훈련장에 미군을 위한 유격훈련과정을 설치했다。

지금까지 주한미8군사령부 산하부대와 미2사단, 한미연합사소속 장병등 6백39명이 이훈련과정을수료했다。

한국동란뒤인 지난50년대부터 우리국군은 수많은 중견장교들을 미국에보내 미군의 보병전술을 배워왔고 특히 조지아州에 있는 포트·베닝육군보병학교에서 레인저코스와 에어본(공수훈련)등 비정규 유격전술을 배운 젊은장교들은 번쩍이는 휘장을 달고와 동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었다。

이들로부터 도입한 유격전의 교육방법은 국군에 급속히 확산됐을 뿐만아니라 우리체구와 체질에 알맞게 발전되었고 이러한 유격훈련이 나중에는 공수훈련이 이제는 예비군교육에 까지 파급되게 되었다。

게다가 이번 백마부대의미군훈련장개설을 계기로 우리국군은 주한미군장병들에게 유격훈련을 가르치며 그들의 전술전기와 우리것을 견주어 보고 더욱 발전시킬수 있게 된것이다。

훈련을 맡은 백마유격대장 林逢春소령(36·3사관1기)은 이곳에 입소하는 미군들은 ▲체력단련▲구보 ▲25개 기초장애물▲6개산악장애물▲하향횡단등을 5박6일에 이수하게되는데 입소장병은 모두 스스로 지원해왔기때문에 교육자세가 매우진지하다고 말했다。

입소자37명의 인솔자인 미69수송대대60중대장 브래들리·스미드대위(27)는「과거 월남전참전등을통해 용맹성이 널리알려진 백마부대의 유격교육 이수자는 부대에서 큰 프라이드를 갖는다」며 이때문에 이훈련의 지원자가 부대마다 줄을잇고 있다고 전했다。

또 본국의 포트·베닝에서 유격·공수·AIT등 과정을 모두 수료하고도 자원입소한 8군공병단소속 캐빈·E·키팅대위(31)는『이곳 훈련장이 미국의 포트·베닝과 비슷하지만 로프타기에서 양발을 재간있게 쓰는등 한국군병사들의 재주는 따라가기 힘들다』고 말하고『교관 조교들의 교육방법은 탁월하다』고 칭찬했다。

또 포트·베닝 유격휘장을 달고있는 존·C·온로 2등병은『도전욕(挑戰欲)을 채우려고 입신했다。부대근무보다 훨씬 기분이 좋아 한국군에서 받아준다면 동료미군훈련을 돕는 조교로 일하고 싶다』고 욕심을 부렸다。

한편 백마부대 교관 趙중위는『미군들은 모두 상체의 힘이 좋아 줄타기나 등판오르기등 힘으로 하는 종목은 뛰어난반면 다람쥐같이 잔재주를 부려야 하는 통나무를 이용한 장애물훈련등은 서툰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조교 全燦宗병장은『이들은 심한 체벌을 가해도 불평이나 반항하지 않는 것은 우리장병들이 배울점』이라고 말했다。

대위에서 2등병까지 다양한 계급과 병과인 이들 미군장병들은 코스모스핀 포장도로에서 구보를 하며 백마부대원의 선창에 따라 우리군가도 불렀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일도 많다만…』

◇힘은 들어도 「白馬유격대」휘장이 달고싶어 훈련에 자원했다는 미군장병들。조교들의 가혹한 기합에 우리말로『너무합니다』고 투덜대는 병사도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훈련을 받고있다。【李基龍기자찍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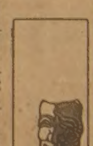
속과 겉

觀光의날 大統領표창 金淸子씨

日人안내하며 망신도 당했지만…

한국여행사 일본어관광안내원 金淸子씨(49·사진)가 최근 제9회관광의날에 대통령표창을 받고 묘한 기분에 젖어있다。한국역사를 잘 알고있는 일본사람들을 많이 깨우쳐 주었다는등 자부심과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요즘같이 反日감정이 고조돼있는때 일본사람 안내를 잘했다고 상을 받아 내놓고 자랑할수도 없는 찜찜한 기분이다。

일본어안내원이 한국에 4백명은 되지만 金씨의 가이드 솜씨는 가히 일품이다。유창한 일본어는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기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전문가들도 놀랄정도。



이때문에 지난12년간 KBS 국제방송에서 일본어관광안내방송을 해 일본사람들로부터 약3천통의 편지를 받기도 했다。

요즘엔 일본인관광안내도 많은 신경을 써야한다고 한다。

최근 일본인저명관광객을 택시에 몇명 태우고 일본어로 안내를 하다 택시운전사에게 망신을 당했지만 그 운전사의「민족감정」이 밉지는 않았다고 웃는다。

그러나 일본관광객이 많이오는걸 불쾌히 생각할필요가 없다고 그녀는 주장한다。

관광수입은 한국경제에 보탬이되는것이고 이들에게 한국의역사, 문화를 소개해줄수있는 一石二鳥의효과를 놓칠필요가없다는 것이다。

미묘한 한일관계때문에 한국에올 관광객이 모두 대만으로 간다는게 그녀의 안타까움이다。

대만이라고 일본의처사가 밉지않을리없지만 그들은 속으로 경계하며 겉으로 실속을 파먹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인관광객의 층도많이 달라졌다는게 金씨의 분석。처음에는 상업인등 부유층이 많이 한국을 다녀갔고 그뒤를 이은것이 근로자·노동자계층이 었으나 다시 관광객패턴이 바뀌어 최근엔 여자와 젊은층이 많아지고있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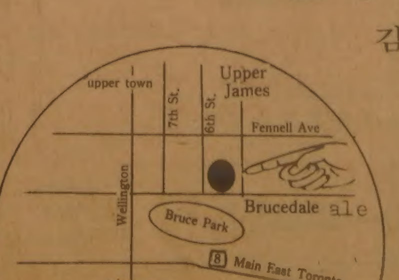
金씨는 한국의 도자기, 문화유적지를 둘러보는 일본인 교수등 지식인의 입에서『고향같다』는 실토를 많이 듣게된다고 한다。그럴땐 그녀의 가슴이 뿌듯해 진다는 것이다。누가 뭐래도 日本문화의 원류는 한국인것일 테니까。

그렇지만 일본인에 대한 감정은『중국인보다 한국인이 직선적이고 장사에 서투르다』는 많은 일본관광객들의 말을 전하면서 담담한 표정을 감추지않는다。【金善宗기자】

"해밀톤에 한인식품점이 생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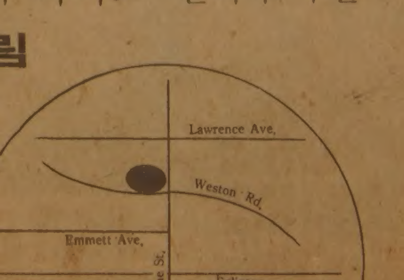
교포여러분, 특히 HAMILTON거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는10월 초순께 **해밀톤 서울식품** 을 **OPEN** 하게 되었읍니다.
성심성의껏 **저렴한 가격** 으로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지도와 편달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밀톤·서울식품이 OPEN될 때까지 **서부 서울식품(☎ : 243-9544)** 에서 **전화 주문시 배달** 하겠사오니, 아무리 적은 주문이라도 서슴치 마시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박인조 올림



해밀톤·서울식품
128 BRUCEDALE AVE. E.
☎ : 1-385-1485

서부·서울식품
1391 WESTON RD.
(로렌스×웨스톤)
☎ : 243-9544



世光、中央무대 첫覇權

獅子旗야구 創團29년만의 영광…慶南추격 뿌리쳐 4-3

宋津宇역투 초반 대량得點
9회초의 逆轉위기 잘넘겨

충북야구의 기수 世光高가 중앙무대서 첫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世光高는 77년 화랑기우승, 80년 대붕기우승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중앙무대에서의 우승은 창단29년만의 첫개가이다. 28일밤 잠실구장에서막을내린 제36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결승전서 世光高는 전통의 慶南高와 격전끝에 종반의 맹추격을 뿌리치고 4-3으로 신승했다.

7월말 대붕기대회 준우승이후 방망이에 불꽃을 당긴 世光高는 이날 8안타를 효과적으로 점수에 연결했으며 컨트롤투수 宋津宇는 절묘한 코너웍을 구사했다.

3회말 3안타를 때리고도 병살타로 득점하지못한 世光의 방망이는 4회말에 터졌다.

선두3번 姜熙奭이 慶南선발투수 裵錫坤으로부터 중전안타를 뽑아낸후 4번朴喜鍾이 우전안타를 때려 주자는無死1、2루。

이어 5번 李想鐵이 신경전끝의 慶南전진수비의 허점을 노려 때린볼이 2루앞땅볼。그러나 1루수비가 비어 주자들이 모두살아 만루가됐다。

世光은 6번 趙熙元의 타석서 퍼스트볼로 선취점을올리고 趙의 3루앞 땅볼로 1死주자 1、3루를 만든후7번 崔東昌이 좌중간을 넘는 3루타를 때려 2점을 추가했다.

慶南은 투수를 郭東烈로교체했으나 투수보크로 3루주자 崔마저 홈인, 4-0으로 점수차를 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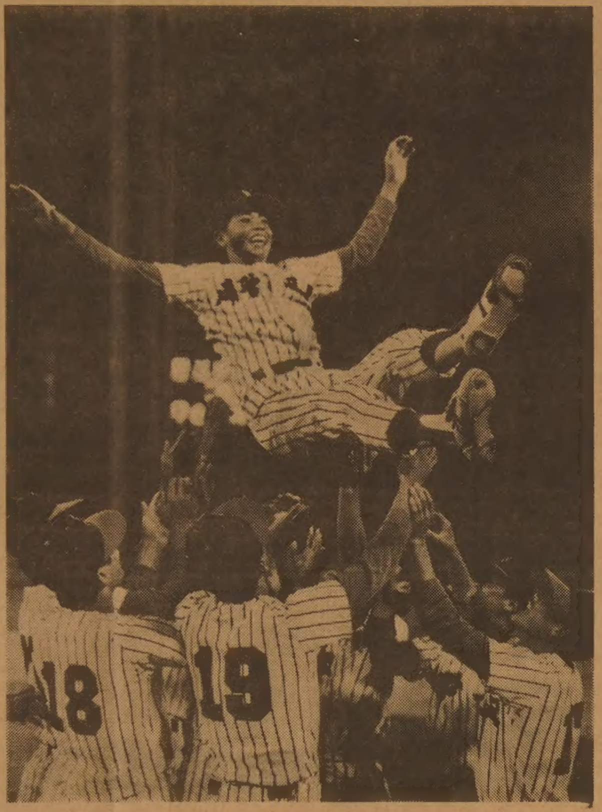
추격에 나선慶南은 7회초 4번 趙容徹의 3루타로1점을 만회하고 9회초 2번崔在龍의 우전안타, 3번 徐敏杓의 데드볼에이어 4번趙容徹이 통렬한 주자일소 3루타를때려 4-3까지 바짝 따라붙었으나 후속타자들이 3진 드리번트아웃,플라이로 잡혀 1점차로 눈물을 삼켰다.

◇최종일 결승전

경남고 000 000 102 — 3
세광고 000 400 00× — 4

◇개인상

▲최우수 선수상=朴喜鍾(세광1루수) ▲최우수투수상=宋津宇(세광) ▲타격상=趙龍鎬(부일중견수)16타수7안타(0·438) ▲타점상=李重和(청주투수) 5점 ▲도루상=趙龍鎬 5개 ▲미기상=金亨泰(인천유격수) ▲수훈상=崔東昌(세광우익수) ▲감투상=裵錫坤(경남투수) ▲감독상=金純聲(세광감독)



◇눈물의 헹가래 世光나인들이 주장 盧敏鎬를 헹가래치며 중앙무대서 이룬 첫우승의 기쁨을 나누고있다.

光州팀(어머니B조) 감격의 優勝

무궁화컵테니스 國民銀(일반)도 朝銀꺾고패권

제2회 무궁화컵쟁탈 전국여자테니스대회가 이틀간의 열전을 마치고 29일 효창코트에서 폐막,3복식·2단식으로 진행된 어머니B조 풀리그서 전남 光州팀(회장 박숭옥)은 서울의 화곡·상록·장충팀을 제치고 2승1패로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으며 목요회는 강남을 2-1로 물리치고 어머니A조서 우승했다.

여자 일반부 결승전서는 國民銀行이 라이벌 朝興銀行을 2-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최종일전적

▲일반부결승
국민은 2-1 조흥은
▲어머니A조 결승
목요회 2-1 강남
▲어머니B리그
①광주 ②화곡 이상2승1패 ③상록 ④장충 이상 1승2패 (순위 승자승)
▲어머니C리그
①청아 ②화곡 ③영동 이상 1승1패(순위 득실점차)

프로야구

◇28일전적

◆서울
OB 000 000 000 — 0
MBC 203 002 00× — 7
▲홈런=白仁天 (1회 2점) 李光殷 (3회 2점·이상 MBC)

◆대구
삼미 200 200 000 — 4
삼성 401 400 00× — 9
▲홈런=琴光玉 (1회·2점·삼미) 李萬洙 (1회·2점) 吳大錫 (3회·이상삼성)

◆부산
해태 210 003 042 — 12
롯데 000 001 001 — 2
▲홈런=金準桓 (6회·3점·9회·2점) 金鍾模 (8회·3점·이상해태)

해태 011 100 001 — 4
롯데 010 100 010 — 3
▲홈런=金奉淵 (2회·해태) 朴膺成 (8회·롯데)

加대학 逆轉勝

친선농구、「청소년에 73-72… 1勝1敗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 대학팀 초청、친선농구경기 2차전이 29일 장충체육관서 속행、캐나다팀은 청소년대표팀에 73-72로 역전승、방한전적 1승1패를 기록했다。

◇제2차전

캐나다 73 (41-33, 32-39) 72 청소년대표

주간女性 구독신청 933·2361

蹴球人 朱榮光씨別世

축구인 朱榮光씨(MBC축구해설위원)가 28일 저녁 7시40분 경희의료원에서 별세했다。향년63세。

朱씨는 지난24·25일 열린 延高戰에서 모교인 延大팀 축구감독을 맡아 후배들을 지도한뒤 26일부터 과로로인한 호흡장애를 일으켜 가료중28일 별세했다。

朱씨는 崇實高와 延世大를 졸업한 50년대 한국축구대표팀 주장으로 스위스 월드컵등 각종 국내외대회에 출전、이름을 날렸으며 京平축구대전에서는 평양팀의 명센터하프로 활약했었다。

유도選手團 확정

美國오픈·日가노컵大會 참가

대한유도회는 美國오픈대회(10월29일)와 日本 가노컵대회(11월11일)에 출전하는 한국대표선수를 확정했다。그러나 세계유도 선수권대회 라이트급 金메달리스트 朴鍾學(쌍룡)은 본인이 출전을 포기、제외되었다。

◇美國오픈선수단 ▲단장=金東石 ▲감독=金正幸 ▲코치=朴淳晋 ▲선수=姜義錫 尹益善 金鍾榮 黃彰洙 李廣鎬 河亨柱 趙容徹

◇가노컵선수단 ▲단장=姜太秀 ▲감독=金在鉉 ▲코치=趙在基 ▲주무=金益三 ▲선수=宋順一、李璟根 朴成秀 金道俊 申琦徹 金炯益 安泳振

漢大참가 퀸즈컵 蹴球 내일개막

【방콕=聯】제12회 퀸즈컵 축구대회가 한국의 漢陽大팀을 비롯 네덜란드 루마니아 臺灣과 泰國의 8개국내 팀등 12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10월1일 방콕국립경기장에서 개막된다。

漢陽大팀은 泰國의 오소트사파팀및 해운항만청팀과 함께 C조에 소속됐는데 1일하오 6시10분 오소트사파팀과 첫대전을 갖는다。

라이베리아 大統領 축구팀 出戰금지령

手當불만 韓訓거부한다고

【몬로비아AP=聯】새뮤얼·도 리베리아대통령은 최근 국가대표축구팀 소속선수 24명이 훈련수당에 불만을품고 6개월간의 리바트(모로코수도) 전지훈련을 거부한데 노발대발、선수전원에게무기한 출전금지령을 내렸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스포츠短信

◆잠실YMCA 체조 강습회

…잠실 YMCA는 10월4일부터 15일까지 제2차 뉴·에어로빅 체조 덴마크체조, 민속춤 강습회를 갖는다。

참가 인원은 1백명으로선착순。회비1만원。☎ 422-0961

◆유도회副會長에 金東石씨

…대한유도회는 金東石씨를 신임부회장으로 선임하고 공석중인 총무에 李相喜이사를 보선했다。

에미賞수상자 발표

女優주연상 故 버그만

【할리우드UPI=聯】=TV드라마 「골고다라는 이름의 여인」에서 골다·메이어 이스라엘 전 수상역을 맡았던 故잉그리드·버그먼이 제34회에미상의 여우주연상을받았다。

◇코미디부문

▲남우주연상=앨런·앨다(매시) ▲여우주연상=캐럴·케인(택시) ▲남우조연상=크리스터퍼·로이드(택시) ▲여우조연상=로레타·스위트(매시) ▲감독상=앨런·래프킨(그때그)

◇특집극부문

▲남우주연상=미키·루니(빌) ▲남우조연상=로런스·올리비에르 (다시찾은 교두보) ▲여우조연상=페니·풀러(코끼리같은남자)

◇드라머부문

▲남우주연상=마이클·러니드(간호원) ▲여우조연상=낸시·마르상(루그랜트) ▲각본·감독상=힐·스트리트·블루스

구독신청 배달사고 933·2361

토요일도 광고접수

오전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 : 533-2361~4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한 국 일 보 광 고 부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11 : 00AM~10 : 30PM
금요일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Queen / Bay / Temperance St. / Yonge / King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 Eglinton / Keele / Bayview / CHINA HOUSE / Bathurst / Bloor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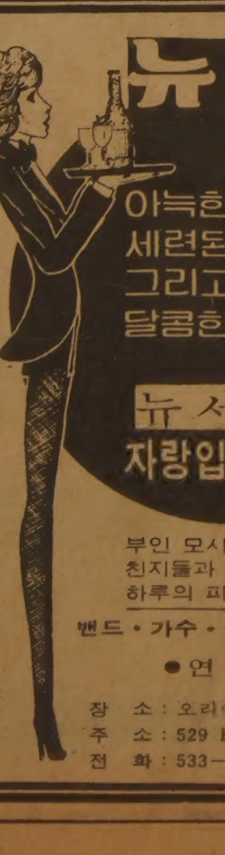
Richard Y. K Wong
Insurance Broker
보 험
⊙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
⊙상업(가게·레스토랑등)전문
312 DUNDAS ST. W. TOR.
(B)977-4057 (H)461-7769
Registered Insurance Broker 리챠드·왕

조 규 혁
종 합 보 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 중 무 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 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中國良藥 大量供應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한국인 유일의
야채·과일·화초 도매상
◉각종 Plant
◉저렴한 가격
◉품질 보장
463 Carlaw Ave.(at Gerrard)
전화 : 465-8167 대표 곽 덕 렬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범한서적
◉한국전집류 ◉고전, 현대소설
◉유치원 백과, 새생활 백과사전
◉사전류, 가정요리, 꽃꽂이 ◉광복20년
1712 Queen E. 전화 : 690-2216
북미주총판책임자 최 규 흘

사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 (R)654-5691 ·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식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중국집) 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 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 : 533-236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발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 - 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마련.
전화 : 532-1054(아리랑식당 옆)
712 Bloor St. W. 김 덕 기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님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신속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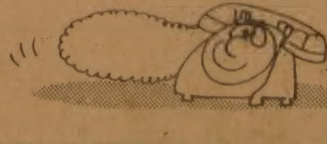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신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 수아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우

INVENTORY - 인벤토리 -
수아봉사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11(B), 536-6250(R) 고 세 위

인쇄

미술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유 종 네

친성인쇄소, 친성광고 대표 : 이 인 복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프레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사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1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원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15-1978(B), 21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효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한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조세환, 530-1222 Mr. 왕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카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위인태권도 究八路拳道
...
총본관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 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광고국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보다 효과있고 신속한 광고로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광고에 관한 문제라면 언제든지 저의 광고국으로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협조해 드리겠읍니다.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오후 5시반)
토요일(오전 10시~오후 4시)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이네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유경험자 Cashier 구함(남)
남자학생으로 Part Time원하시는분 환영
900 Queen St. E.(at Logan Ave.)

Shoe Repair Helper
Shoe Repair에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263 Morningside Ave. at Kingston Rd.

Hamburger식당 Carhier구함 착실하고 영어 잘하는 여자분 7:00a.m.—3:00p.m.까지 Take out.
전화 : 274—7010 Mr. 유.

성실한 Full Time 여자 캐시어 구함
제랄드 & 콕스웰
전화 : 465—68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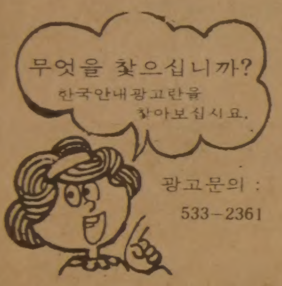
식품점에서 일하실 건장한 남자분 구함
능력에 따라 우대함
전화 : 532—1054(제일식품)

집에서 일하실 할머니 급구
(숙식제공) 전화 : 762—1572

Leading clothing manufactures requires payroll clerk to calculate and record weekly piece work payroll. Apply: 637 Lakeshore Blvd. W. Tor. Tel: 591—7161

가정교사 하실분(하루3시간씩 — 주5일)
(7살, 9살) 전화 : 762—1572

일본음식 겸 중국음식 요리사 구함(미시사가)
전화 : 274—7010 Mr. 유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구혼

결혼상담,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German—Canadian(백인)으로 37세임.
한국인 여자친구 원함.
전화 : 1—727—6490(Gert)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636 Vaughan Rd. #1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 (Mrs. Adroe)

베비시터

입주하셔서 애기 봐주실분 구합니다.
스카브로 지역.
전화 : 284—3031

입주 또는 출퇴근 하시면서
애기 봐주실분.(Steel & Pharmacy)
전화 : 496—1664 Mrs. 리

입주하셔서 8살된 여자아이 보아주시고
가사일 좀 살펴주실분 구함.
전화 : 624—5897

매매

〈채소 염가 판매〉 미시사가 농장
◉판매시간: 10월, 11월은 토, 일, 공휴일 Open(시간 오후1시~6시)
◉판매방법: 칼과 Box를 준비해 오셔서 직접 뽑아가십시요.
◉채소종류: 배추, 각종무우(김장용)
◉장 소: 에그린톤과 Hwy 10에서 서쪽으로 1 마일 가면 두번째 라인 있음. 여기서 북쪽으로 500m가면 농장이 나옴.
◉연 락 처: 622—5509. — 미시사가 농장 —

건물 & 비즈네스 매매
(1) 매상 4,500 이상(W)
아스킹: $155,000(Hamilton)
(2) 매상 4,000—W.
아스킹: $99,000(Toronto)
전화 : 535—0028 Mr. Kim

각종 알로베라제품 판매, 쥬스·크림·로숀·약용크림외 다수품목 보유, 최저 염가 봉사합니다.
5439 Yonge St. 전화 : 222—4717 Mrs. 김

Hardware Store for Sale
Finch Ave.(토론토 북쪽지역) Very Good Business
(안정된 사업) 전화 : 654—6600(Domenic)

에토비콕 플라자
3층 벽돌 가게, 2층은 사무실로 쓰임.
151 Foot Deep lot, 파킹장 있음.
아스킹 : $265,000
전화: 763—5555 도리스·부르다
Cholkan Real Estate

Variety Stores
1. Ajax: W.T.O: $7,000 Rent: $1,260(M.)
리스: 6 years+5 years, 1,800 sq.ft. Asking: $75,000
2. Oshawa: W.T.O.: $8,000 리스: 6 years, Asking: $60,000
3. Oshawa: W.T.O.: $3,500, 리스: 6 years, 렌트: $500
아스킹: $29,900

Bagot Realty Inc. Realtor 1—579—4010
after hours, Frank Magnus 683—8154

Building내에 있는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넓이: 2500 sq.ft. Open한지 10개월 정도됨
윗 Building에 간호학교가 있음. 갑작스런 형편으로 발전이 대단히 기대되는 곳이나 최저의 가격으로 팔고자 함. 아스킹: $20,000+스탁(네고.)
단, 모두 Cash 요구. 1—525—2928 (Mr. 엄)

건물과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6,000 별도 입구된 2개의 2Bed Rm.Apts.
Mortgage는 주인이 인수함.
Sincere Realty Inc.
R: Better Call Before 9:00a.m. 444—0674
B: 497—8900

Italian Fish Business for Sale Eglinton & Keele
Good Condition. 10 years Lease. Rent : $280/M.
653-1725(Tues.-Fri.)Vito 242—3818(월)

성능좋은 중고 피아노 팝니다.
(아파트싸이즈)
전화 : 665—8233, 636—1430

---

(1)주소 찍는 기계
(Addressergrapher Multigrapher)
◉ 최고속도 시간당.5천개
◉ 철판 Plate 사용
◉ 전기로 가동
◉ 가동비 저렴
◉ 사용 간편
(2)Grapher Typer
Plate에 주소를 만들어 넣는 타자기
전화 : 533—2361

Store for Sale
1년된 New Plaza에 위치한 장래성이 대단히 좋은 지역.
Lambton Gift & Variety 763—7317

Snack Bar Donut Shop &
Video Machine for Sale. 767—3301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Grocery & Variety Store매매·
좋은 가격으로 팔고자 함
전화 : 469—3708(오후1시이후 연락바람)

"특별한 기회"
발전 가능성이 큰 이윤높은 소매업자가 자본이 있고 능력있는 투자가를 찾음.
현재의 연간 1백만달러 매상고를 두배로 늘릴 수 있음.

★회답처 : C.H. Eaton Asso.
1166 Bay St. #304
Tor. Ont.
M5S 2X8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차매매

77년 Chevy Malibu 2 Door, 49,000 mile.
Air—Con. AM—FM 카세트 $2,300 A—1 Cond. Certify.
전화 : 267—4770 Mr. 권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Ossington Subway 근처〉
2층 one bed Rm. 유지비포함 $350/M.
지하실 유지비포함 $150/M. 전화 : 531—3656

Victoria Subway 건너편 (Condominium)
3 Bed Rm. $700/M.(유지비 포함)
전화 : 698—1347 694—4812

One Bed Room 아파트 세놓읍니다.
College & Dovercourt
전화 : 531—6183

집렌트

4 Bed Room House전체를 세놓고자함(Brampton지역)
2 Bath Room, Family Room, Fire Place, 차고등,
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593—8943

단층집(Semi Detaches) 4 Bed Room 세놓음.
Home Bar등 지하실 꾸며져 있음.
스카브로지역(Neilson & Sheppard). 전화 : 968—9450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춘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관 광

코라메 관광(주)(제일여행사 2층)
일년내내 관광을 함께·····
649 A Bloor St. W. 전화 : 535—0853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렌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안)
각종 파티·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 성 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 ×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윈치)
전화 : 746—3458

광고문의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1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미술연구소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사무용구및계산기

SBS캐쉬 레지스터 (핀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어떤 광고가 필요하십니까?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추석맞이사은대세일

조상의 얼이 담긴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닥아
왔읍니다. 그동안 교포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안정된 drapery 사업체로 성장
시켜 주신 감사의 보답으로 즐거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전품목에 대해서 대폭 세일
을 하오니 변함없는 성원을 바라오며 더욱더
저렴한 가격, 좋은 상품을 정성스럽게
가득히 준비하고 교포여러분께 항상 밝은
미소를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원보 올림

LUCKY DRAPERY

4141 DIXIE RD. ROCK WOOD MALL
(딕시×버남돌프)

☎ : 625—0698